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의 시기지만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5월 2일 (토) 제 177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집콕’ ... ‘신앙의 가정중심성’ 회복시기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달라진 5월 가정의 달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가정의 달인 5월의 풍경도 예년과 달라졌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먼저 가족과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한마디로 강제로 “집콕중”이라 같이 지내는 것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난 가정은 괜찮은 편이다. 하루 삼시 세끼만 해결해주면 된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집콕’을 하는 전투육아는 진행 중인 젊은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또 부모님도 찾아뵙기가 만만하지 않다. 어머니날이 다가 오는데도 멀리서만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된다.

먼저 ‘전투육아’를 벌이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어느 엄마의 속내를 들여보자:

“오사 오사!” 나도 아이들과 재밌고 신나게 잘 보내기로 다짐했다.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늦잠이라도 자 버리면 하루를 보내기가 조금 수월할지도 모른다. 아침 10시까지 자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어른들은 매일 아침 ‘조금만 더’를 외치며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지 않는가? 하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엄마의 검은 속내도 모른 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한다. 그 시간은 겨우 아침 7시였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으로 우뚝서서 가정의 화합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치질까지 마쳐야 ‘끝났다’하며 안도의 숨을 돌린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하루는 더 일찍 시작될 것이다. 내일에는 아이들과 어떻게 잘 보낼까? 소리 안 지르고 무서운 표정 안 짓고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때일수록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이들도 집에서는 중간 소음 때문에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많이 답답할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즐겁게 잘 보내줘야겠다. 이렇게라도 버티고 버티야 확진자가 또 발생하는 상황

을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아이들과 ‘집콕’ 하는 모든 부모들도 잘 보내길 응원한다.

아무쪼록 어서 이 사태가 잠잠해질길 바랄 뿐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루 빨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종식선언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를 직접 돌보지도 못하고 어디 말걸 곳도 없어 더 불안해지는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란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떨면서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가정폭력’ 증가도 그중 하나다. 가족 구성원 대부분

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갈등이 잦아지고 폭력으로 발전하는 식이다. 유엔까지 나서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획기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정 내 폭력사건은 확연히 늘고 있다.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레퓨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폭력신고 전화 건수는 25% 증가했고, 홈페이지 접속도 무려 150% 뛰었다. 미 CNN방송도 뉴욕주 나소카운티 사례를 들어 최근 몇 주간 가정폭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늘었다고 전했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장기간 격리되면 다툼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딱 그런 경우다. 영국 브리스톨대 마리앤느 헤스터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가정폭력은 보통 크리스마스나 여름방학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긴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 공포도 갈등을 한층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위험 탓에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여기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가정폭력으로 잘못 풀고 있다는 진단이다. (3면으로 계속)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지구촌 민낯

언론, 경제적 격차, 무능력한 정치, 거짓 정보유출로 팬데믹 더욱 증가 지적

‘코로나19’가 전 세계 280만 명(4월 24일 현재)에 달하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국제사회 대부분이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에 무방비에 가까운 상태라는 게 드러났다.

보건 체계만 무방비였던 게 아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의료 접근성에서 차이가 났다. 또 국민 생명이 달린 위기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가 초당적인 해결에 서둘렀고 잘못된 정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Corona reveals the world's 3 problems).

경제력 격차가 곧 생명권 격차

미국은 높은 의료비용과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이란 고질적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대 4,000달러 이상

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 내 인종에 따른 피해편중에 충격을 받았다”며 “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언제나 최대피해자가 되어 하는가”라고 말했다.

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진 비용은 무보험 빈곤층이 병원 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뉴욕시에선 8일 기준 사망자의 62%가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

바이러스 확산을 피해 각국 정부가 자가 격리와 외출금지를 주문했으나 이 역시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도구가 됐다. 스스로를 격리할 집이 있는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인지, 며칠간 휴직하고도 생계를 이을 수 있는지에 따라 생명권에 격차가 생겼다. (3면으로 계속)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취약계층이다. 앤드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9면 인터뷰 강태광 목사, 강순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Florist 나비꽃집 NABI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발행인 칼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 잿빛이리라. 잿빛은 먹구름 색이다. 검정에 가까운 짙은 회색이다. 온 땅에 흐드러졌을 노란 개나리도 못보고 분홍 진달래도 못보고 지나오다 5월을 맞았다. 짙은 향기와 함께 자색, 보라색, 크림색 등 다양한 색깔을 뽐내던 라일락도 숨죽이며 숨어 있던 2020년의 봄이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늘 대동(帶同)하였던 하얀 목련도 지금은 제대로 볼 수 없다. 내 마음에 잿빛이

있으니 세상의 모든 색깔도 칙칙하게 보인다.

교우들의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다. 아들들의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다. 저들도 뛰놀 봄을 빼앗긴 채 5월을 맞았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왜 이런 답답한 시간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미안함이 가득하다. “애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힘드니? 꼭 갇혀 있기가. 너희들이 싱그러운 봄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은 우리 어른 탓이다. 아니, 내 탓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용서를 빌고 싶구나, 아이들아...”

며칠 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어렸을 적에 해맑게 불렀던 노래였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랑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겨울엔 하얀 거예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마음에는 먹먹함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래, 이걸 아니야. 내 마음에 잿빛은 아니지. 내 마음에 색깔이 따로 있었잖아. 계절마다 그랬듯이 내 마음에 5월의 색깔도 있었잖아.” 그 노래를 부르고 난후 이렇듯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함께 몰려왔다.

내 마음에 잿빛을 벗고 5월색을 입고 싶다. 어린이들의 천진난만(天真爛漫)한 맑은 웃음 색을 입고 싶다. 어린이들의 이리저리 뛰노는 채색(彩色)을 입고 싶다. 어린이들의 뽀뽀뽀뽀한 눈망울 색을 입고 싶다. 지나친 욕심인가? 아무튼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5월의 색깔을 입고 이 5월 중에는 꼭 다시 만나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에게 내 마음의 색깔을 보이라.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대의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마음의 빛을 쏟아내야 한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5월의 색을 함께 빛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피콜로는 어디 갔어?”라는 이야기다. 아주 오래 전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미카엘 코스타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앞두고 백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마지막 리허설을 할 때였다고 한다. 단원 중의 하나인 피콜로는 자기 악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악기를 소리를 내는데 나 하나쯤 소리를 안내도 괜찮을 거야.” 그 때 지휘자는 최종 리허설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렀다. “피콜로는 어디 갔어?” 피콜로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 피콜로는 반드시 함께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야 했다. 이 5월에, 다시 모일 그 때에 피콜로가 되지 말자. 피콜로가 되어 슬쩍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겠는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그리고 찾으신다. “피콜로는 어디 갔어?” 노래하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5월엔 5월엔 빛 날거예요.” 화려한 빛의 쇼(show)를 펼칠 준비는 됐는가? 드디어 5월, 이제 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기본에 충실...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 돌본다!

TGC, 임상심리학자 차드 크라스카 장로의 ‘불안해하는 자녀양육 지혜’ 보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자신의 걱정뿐 아니라 자녀들의 걱정을 다루기 위해 실제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 자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얼마나 적절히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Parenting Anxious Kids in an Anxious Time).

필자인 차드 크라스카(Chad Kraska)는 임상심리학자로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PCA 교단인 Uptown Church 장로로 섬기고 있다.

1. 정보 수집은 믿음만한 자료를 통하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머리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디어 대신 믿음만한 뉴스나 정보원을 찾도록 힘쓰라.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래에서 구할 수 있다.

△미국질병통제 예방센터(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gov)
△미국외상성스트레스연구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of Traumatic Stress, cstson-line.org)

2. 지나치게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

비를 하되,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하라.

△걱정, 두려움, 염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우리의 현재 감정 상태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감정을 정확히 명명(naming)하고 나면 그 감정의 강도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

△자녀들과 함께 하는 대화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사실에만 입각해 말하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라. △자녀들에게 건강을 위한 습관을 가르치고, 이를 가족이 함께 세우는 계획 및 안전생활 수칙에 포함 시키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린 아무런 힘이 없어”와 같은 말이다.

△해결책은 각 시나리오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간파하고 그것을 정확한 진술로 바꿔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떤가?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처하느라 힘들었던 건 분명해. 이 위기가 끝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파괴력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예를 들자면...”

6. 기본에 충실하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을 간과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고 균형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가끔 바람을 쐬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야외모임을 계획해보라. 가능하다면 잔디가 있는 곳으로 나가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 이 시간을 통해 가족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라.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되 미디어에 과다노출 않도록 부모가 먼저 안정되고 휴식가지며 주변 돌아보기도

지 못하다. 정보를 모으고 뉴스를 읽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뉴스는 하루에 두 번만 확인한다’ 등의 규칙을 세워 언제 어떻게 최신 뉴스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정하라.

△기사 제목만 보고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말고,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충실하라.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해 자녀를 역시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의 복잡한 거미줄 사이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정보를 수집해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3. 필요에 따라 자녀들과 정보를 공유하라

아이들과 정보를 공유할 준

다면 그것을 부모와 나누도록 격려하라.

△아이들의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거나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동시에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라.

△염려나 두려움, 걱정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언제나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라.

△부모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거야” 같은 말을 통해 안심시키라.

4.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보여주라

△자신감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이려면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5. 부정적인 생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과 당신 자녀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처럼 두려워 떨거나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최악을 상상한다 함은 ‘이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처럼, 어떤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도한 일반화는 염려를 증가시킬 뿐인 “황상”, “결코”, “아무것도” 등의 부정확하고

△쉬라. 이 기회에 해야 할 많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잘 먹으라. 카페인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들이 당신의 걱정이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잘 관찰하라.

△웃고, 놀고, 즐기라. 좌절과 침울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모두 보낼 수는 없다. 때로는 실없는 행동, 유머,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당신 자신과 가족의 마음에 짐을 털어주라. 그리하면 모두의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대표)
Tel: (718)9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회(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0 표시를 하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담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사진 포함)
-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 4) 학부 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20년 5월 30일

-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집콕...가정에베로 강건해진다!

(1면에서 계속)

나라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딱히 효과는 없어 보인다. 영국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락했다. 프랑스, 스페인 정부는 약국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집 밖에 있는 동안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게끔 돕겠다는 것이다. 취지야 좋지만 폭력에 시달리는 구성원의 경우 가해자의 감시망을 벗어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챙겨야 할 대소사는 많은데 코로나19 여파로 알아진 지갑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택배대기' 명령을 내리면서 경제활동이 멈춰서기 시작한 3월 16일 이후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노동인구 8명 중 1명꼴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만든 일자리가 모두 날아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에서도 가족의 힘은 강해진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대학 W. 브래드포드 윌콕스 사회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부부간의 돈독한 관계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Marriage With Family at Its Center: In trying times, spouses realize that the core of their relationship is caring for children, relatives and one another).

"우리 가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미국 전역에 펼쳐지고 있다. 수백만 명의 부모가 일자리를 잃거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최전방으로 향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시나리오가 전국 가정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 대우행의 여파가 미국의 결혼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재앙의 여파로 결혼률도 떨어질 것이다. 우리 생애 최대의 불황 속에서 결혼의 제단으로 향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남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결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혼란 속에서 남편과 아내



들은 얼마나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에게 의존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 나아가 친척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부들의 관계가 오히려 강하고 안정되게 될 것이다. 먹구름 틈새로 내리쬐는 햇살처럼 말이다.

나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썼다. '어려움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 헌신할 것이다. 이혼이나 별거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혼율은 금융위기 직후 떨어졌고, 지난 10년 간 20% 내려갔다. 이번 새로운 위기에서 이혼율은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시련의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타적이 되기 때문이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가족이 얼마나 필요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미국에선 가족 우선 모델이 소울메이트 모델을 압도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와 내 아내는 지난 주말 밤 데이트를 즐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는 있었다. 멀리 떨어진 손자들과, 부모님들을 온라인에서 만나 겨냥하는 시늉도 했다. 이런 것들 덕분에 밤 데이트를 할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대부분의 결혼이 더 강해지고 더 안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예배가 회복돼야만 한다. 이번 코로나시대로 타의에 의해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모들도 역시 재택근무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다가 많은 교회들이 주일예배뿐 아니라 평일 모임도 쉬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기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인 축주와도 같았던 '신앙의 가정중심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신앙의 중심센터임을 기억하고,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재인식하는 기회로 선용되기를 소망해본다. 그래서 파편처럼 흩어져가는 사회 유지의 기초인 가족 간의 유대감과 교회 유지의 기초인 가족 간의 영적 통일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소독작업과 마스크 등 방역조치 없이 수백만 명이 투표소에 몰리도록 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증가폭을 보면 이란 총선이 열린 2월 21일 이전보다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상황을 대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올림픽 개최 연기를 결정한 이후 갑자기 코로나19 검사 수와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13면으로 계속)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지구촌 민낯

(1면에서 계속)

인도에선 정부의 외출자제령에도 하루 생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외출을 감행했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저개발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내 56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는 코로나19 확산의 복병이 됐다. 라스베이거스는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격리가 불가능해진 노숙자들을 주차장 맨바닥에 재웠다가 비판에 휩싸였다.

전염병 못 막는 무능력한 정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치가 문제인 곳도 있다. 정치적 유, 불리를 겨루느라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싸움 때문에 시민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집권세력이 선거에 몰두하면서 확진조짐을 보이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론

세상에서 더 맛있는 사람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그동안 투병중이셨던 본 신문사의 전 발행인 고 장영춘 목사의 소천에 인간적으로는 슬픔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지만 또 한편 기쁨을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시 그도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목양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 어떤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고도 일관성 있게 분투하는 삶을 사셨기에 이제 그는 이제 자신의 믿음의 실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 장영춘 목사님은 진정한 맛있는 분이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성도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사실 그렇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 이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영광의 총만함을 누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과 불만족과 불행이 총만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성도들의 주관적이며 일방적인 믿음일 뿐 객관성과 실현성이 전무하다면 정말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며 이러한 믿음대로 인생을 살 때 성도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맛있는 삶인 것이다.

이것은 작은 것을 투자해도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투자 권유자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결과 정말 그의 믿음이 현실화되어 상상을 불허하는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의 인생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투자 권유자의 말을 믿고 투자할 때마다 엄청나게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는 확실히 가장 지혜롭고 어떤 누구보다도 맛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삶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광과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됨을 입증하셨다. 더욱이 그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셨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이 믿음대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불쌍한 자들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된 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를 불분하고, 불안과 공포,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 상실감 및 절망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파탄 내게 했다. 이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역병은 이들을 엄청나게 위축시킨다.

(5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Tel.201)346-0030 5Brimm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검출력 비디오 내시경 시술
 매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미백(엔플랜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국제 항공대학(원)
Pilot Certificate Program
항공 전문가에 도전하라!
항공경영학 학사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I-20, J-1 Visa)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2-16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관과정 취득 후에는 교관으로 비행시간을 쌓을 수 있음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근래에 들어와서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코로나바이러스19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는 놀랍게도 모든 국가와 인류에게 평등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존재다 싶다. 이제까지의 질병은 대체로 저개발국가에서 독점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선진국이나 후진국,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 큰 만행을 저질렀다. 온 세상이 한 목소리로 코로나를 말하고 퇴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일은 흔치 않다 싶다.

또한 코로나는 아주 평범한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전염병이었다. 휴지, 고무장

갑, 마스크 등등 평소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요, 이윤을 낼 수 없다고 여겨 외면함으로 인건비가 적은 나라들이 소규모로 생산하던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나가라는 수칙에 평소엔 흔하기만 한 장갑을 사러 중국가게에 갔더니 이미 동이 나고 말았다.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예약을 하고 갔더니 이미 가격이 두 배로 올라 있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가 물러가면 물자가 부족하여 전쟁을 치르게 된 생필품들을 모든 국가들이 전략적 국가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다행스런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망정이지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점은 힘되고 어려워도 가정이나 국가는 비상시를 위한 예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태리는 금년 본래 마이너스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EU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당했고, 어찌어찌 통과를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몇 달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됨으로 국민들의 삶은 몹시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EU에서는 EU체를 동의하지 않았다.

잘못하면 이태리로 인해 EU전 회원국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태리 정치가들은 몹시 분노하고 있다. EU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말이다. 처음 EU가 태동될 때 앞장서서 주선했던 국가 중 하나가 이태리였는데 말이다.

결국 EU을 태동시킬 때 많은 양보를 하고서도 감내한 독일이 제일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그동안 놀리던 공짜까지 다시 일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태리는 리라를 사용할 때보다 물가가 100% 올랐다.

독일의 국민성은 제정 로마 시대부터 검소하고 근면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게르만 민족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개인이나 국가나 돈이 없어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국가도 좋아하지 않게 된다. 고로 개인이나 국가는 평소 재정의 지출을 조심하고 항상 절약하고 아껴야 한다. 정치가들이 국민의 표를 의식하여 표퐁리즘적인 지출은 극히 삼가야 한다. 자신의 앞가

림에 눈이 먼 정치가들은 정안되면 땅이라도 팔면 된다 생각할지 모른다. 저들은 콜시카도 팔았고, 사보이와 니스를 불탄서에 양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 중에는 체육인, 의사와 간호사, 종교인, 문필가, 음악가, 정치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망라되었다. 너무도 귀한 분들을 말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중에는 존경하는 미주 크리스천신문 발행인이셨던 장영춘 목사님도 계신다.

참으로 21세기에 나타난 코로나19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너도 준비하라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셋세마네교회)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19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며 먼저 보내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므로 이별도 생이별을 해야 하고 고난이라면 고난이지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하셨을까 생각하며 고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갖가지 변수로 가득합니다. 고난의 경중은 다 다르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회오리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당하는 고난,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합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인생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정리되고 고난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비로소 수용에 단계에 이릅니다. 고난은 받아들여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풍랑은 거칠고 혹독합니다. 삶에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는 법은 고난과 함께 뒤돌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고난 극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고난을 은혜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 중의 하나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귀환 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곧 스룹바벨의 성전건축 이야기(학개와 스가라)와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룹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3차 포로귀환부터 BC 400년경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벽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1-7장까지이며 느헤미야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재건해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벽입니까? 주일설수의 성벽입니까? 십일조의 성벽입니까? 술과 담배의 성벽입니까? 우상숭배의 성벽입니까? 성결의 성벽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역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고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만나행통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재건에 대해 다룹니다. 두 번째는 8-13장으로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영적개혁에 대하여 다룹니다.

1. 고난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소식과 남은 자의 소식을 들읍시다.

모든 집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지역의 표시이며,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성역의 표시이며,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지 7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3절에서 설명합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뿔혀 쇠사슬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귀족과 유능한 젊은이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유다에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만 남게 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당시 모습과 유사합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상징이 되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

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임을 그는 명확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5절)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이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자기부인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심

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인과 그 권위에 대한 친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공물을 베푸시는 주인인 성품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한 부분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니 내게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이 비쳐질 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공부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분리가 아니라 공감의 기도입니다(6-7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회개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자사의 불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세워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현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무정'입니다. '무정하다'는 뜻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타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 고통은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재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치에 맞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의 자리요, 섬김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인, 사장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위치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위치임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헤미야처럼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계속 될 것 같지만 고난이 끝나고 나면 기쁨과 환희 순간이 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오듯이 슬픔이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주는 축복을 쓴 보자기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은 아픈 것이지만 인생의 한계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우리 인생 길잡이도 되고 교사도 되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조약돌을 보면 거친 돌조각이 바다에 떨어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니 그렇게 부드럽고 예쁜 조약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 그리고 욥이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무게를 견디려면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고난이 삶을 짓눌러도 영혼은 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하게 주시기보다는 고난가운데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시는 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듯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nygo4tgc@yahoo.com

고난의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 1장 1-11절

2. 고난의 이스라엘 고국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합니다(4절).
예루살렘의 폐허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너져 내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당한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에 울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울 수밖에 없으며, 70여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을 보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내면에 깊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슬픔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별의 시간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신 주권자임을 그는 듣고, 울며, 슬퍼함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타인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2)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9절).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만을 토설하는 감정의 배설 창구가 아닙니다. 내 역을 함만을 호소하는 탄원 창구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 창구도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내용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슬 팔은 관원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한국의 선거

멀리 태평양을 건너온 지 20년이 되어도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 더군다나 북한선교를 마지막 땅끝 선교의 꼭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너무나 중요했던 일인 만큼 오랜 시간을 드러 기도했다. 결과는 보수진영의 참패로 드러났다. 세상 천하만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으니,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한국에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화병환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조국을 향한 기도는 더 간절해짐을 느낀다.

여당과 야당, 좌우의 대립이 폭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한국정치에서 어느 한쪽에 편든다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혹자는 간단하게 몇 글자로 정리한다. '그놈이 그놈이다. 별놈 없다. 누가 되든지'로 금번 선거를 나름 깔끔하게 정리한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언급자체가 유익함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

다. 엄청난 차이로 여당 정부의 승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막무가내식 선거법 협상의 밑거름이 효과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위태위태 불안불안하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전교조에 의해 사상적으로 많이 열려있던 고교생들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졌던 내용이 문제였다. 정치현실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기 전에, 준비 없이 주어졌던 투표권이 사회적 현실 앞에서 제대로 행사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크지 않은 표차이로 양분된 금번 선거에서 야당이 대패하는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

그 외에도 불공정해 보이는 선거법으로 치러진 금번 선거에 대해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 일까를 생각하며 다시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와 본다. 결국, 상호 비판하는 것도 나라와 민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서로 헐뜯어서 함께 망하는 쪽

다. 급식봉사 가서 식판 나르고, 설거지했다. 그런데 일부는 '별나게 하지 마라'고 하더라. 쓰레기 주우러 가면 열심히 쓰레기 줍는 거 말고,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하고 하라고 했다. 봉사하러 가서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게 별난 거였다."

공감능력이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하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런데 현재의 야당은 아직도 국민들을 정치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의도를 판단치 못하는 무지맹이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은 자기들의 진심은 알리지 않고, 험란한 야당의 말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결국 답이 없는 전쟁이 치러진 것이다. '좋은 농부는 밭을 밟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야당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노 전 대통령이 늘 하던 말이다. 그래서 폐족이라고 스스로를 일컫던 자들이, 국민들과 공감의 생존력을 회복하고 일어섰던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생각해볼라.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전쟁의 승패는 어떤 면에서 예견되어왔었지 않은가? 폐족이라고 스스로를 치부했던 자들의 모습 속에서 야당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직도 스스로를 예전에 잘 나가던, 나라는 영망이 되어도 개별적으로 살만하다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스스로를 이미 망했지만, 더 철저하게 폐망한 가문처럼 여기고, 새로운 날들을 도모하며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개월 때는 확실하게 깨져야 제대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자녀교육을 통해 늘 확인하는 말이 아닌가? 밭을 밟지 말고, 그 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돌고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치워주고, 잡초도 뽑아주면, 밭은 좋은 열매로 농부의 수고에 답하여 주리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의 내용, 오픈되면 조금 오해가 될 법한 편향적으로 보이는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농부는 밭을 밟하지 않는다

-공감, 전쟁, 기도

면서,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의 나라(?) 일에 신경을 쓰느냐고 핀잔하는 이도 있었다. 또 모든 일을 달관하듯 하는 사람도 보았다. 어떤 이는 설마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 먹기까지 하겠느냐? 괜찮다.' 그렇게 단정하며 위로한다.

선택과 기준

교회 안에도 다양한 관점의 성도들이 존재하기에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목사는 그저 무색무취하며 지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성경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를 보면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말하는 것도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굳이 주변의 말림이 있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기준을 선명하게 설명도 하였다.

그렇게 굳이 숨기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미국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장래 통일시대를 염두에 둘 때에, 어느 입장에서 전개를 하는 것이 북한에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유익한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금의 여당 정부를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각과 기대는 너무 크게 무너져 버렸

으로 가서는 곤란한 데서 모든 생각들을 시작하게 된다. 되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겸손히 더욱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해야 할 이유가 된다.

좌우,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떠나 상호견제를 이룰만한 야당의 온전한 회복을 기도한다. 여야의 협력도 힘없는 야당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답답한 야당을 생각하면서, 자들이 회복되어야 견제와 균형 속에 나라와 민족이 살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기대할 수 있기에, 여서 몇 가지를 적어서 평소 교류가 있던 야당 정치인에게 몇 가지를 적어 보았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현실인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어 본다.

밭을 밟하지 마시라

금번 선거패인의 가장 핵심은 야당의 시대를 읽는 '공감능력'의 부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부산의 어느 야당 당선인의 의견을 적어본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고교시절을 방직공장에서 보내고 뒤늦게 야간대학과 사법고시를 패스한 한 여성 당선자 의원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보수의 자정할 교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서 일으켜 주는 정치를 원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품잡고, 의전 좋아하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를 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산불이 났기에 직접 올라가서 잔불 정리를 했

평화로운 때 전쟁을 준비하 시라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이 끝났으면 곧장 다음 전쟁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매년 후회와 탄식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 임진왜란 후,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는 왜란의 가장 큰 원인을 '평화가 너무 길었다'는 데서 찾는다. 무슨 말인가? 평화로운 때,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이들만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가하고 누릴 자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랍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는 비결이 이것이다. 전 국민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 속에 함께하는,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군사적 긴장감들이 평화의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전쟁 같은 선거에 패하였다. 그러자 곧장 여당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라. 자신들의 부끄러움들은 철저히 가만 속 기만으로 숨겨버리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만을 드러내는 홍보력으로 일들을 속속속결하고자 한다. 대통령 중임의 개헌과 입맛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와 자신들의 지난 잘못에 대한 과한 면죄부 만들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무제한 속도전 등을 내세운다. 앞으로, 저들 속에 잠복되어 물어갈 수 있는 반 기독교적인 정책들, 인권조례, 동성애 합법화, 토지공개념 토지 국유화, 고려연방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몰락, 사유재산권 제한과 박탈, 후에는 개량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 등 무시무시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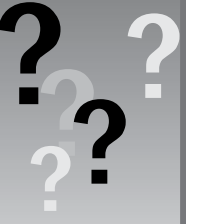
이다. 더불어 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기 위함이다. 좌와 우, 야당과 여당, 균형과 견제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떨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통일이 진척되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그런 조국이 된다면, 이곳 미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는가? 이렇게 야당이 무능하고, 그 무능함이 다시금 지역갈등구도로 모든 것을 회귀시켜간다면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조국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조국 대한민국을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침 한국의 선배 목사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교회에서 선거결과가 나오던 밤과 새벽부터 시작해서, 기도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동포들과 우방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도 많이 기도한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기도들이 공적 대표기도시간들을 통해 공감하는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감사하다. 그렇다. 선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화병을 일으킬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만큼 더욱 기도할 시간을 찾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새롭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예배도 중지되고 영상으로 대체되다 보니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카운티 Mr. Chung

A: 현재의 시국은 재난으로 인한 비상시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인해 감염을 막기 위해 교회당 예배도 중단되고 영상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사태를 큰 재난으로 여기면서도 인간과 지구촌을 위한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해보면 첫째, 성전예배 모임의 소중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시137편을 보면 과거 바벨론 포로시절에 바벨론 강에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유다백성들처럼 우리는 성전예배의 귀중성을 배워야 합니다. 몇 달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하다보니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주일이면 교우들과 같이 모여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하고 함께 웃으며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둘째, 현대인의 가정은 서로가 바빠 대화도 부족하고 삭막했는데 이번 재난으로 가족끼리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가족간의 오붓한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원했던 가족간의 대화를 많이 나눔으로 가족간의 신앙회복,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될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너무 바빠 게을렀던 개인 성경읽기와 경건서적을 집에서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삼주요, 즉 하루 3장

예배, 자꾸 타협하면 교회는 점차 궁지에 몰려

주일 5장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이번에 다시 그것을 실천해 봅시다. 성경한 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구절을 노트에 한절 적어 깊이 묵상해 봅시다.

부정적인 요소를 예측해 봅시다. 첫째, 목회자들은 교회 재정 걱정을 합니다. 각 교회들이 평상시 보다 30-40%의 현금이 줄게 되어 재정적인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체 교회당을 가진 교회 건물 페이먼트, 직원 사례 등이 큰 문제이고 작은 개척교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앞으로 없어지는 교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비즈니스를 못하니 수입이 없어 실업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렌트비도 충당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 편리한 예배, 편리한 기독교로 대체될 위험성이 있다. 오래 동안 가정에서 영상이나 컴퓨터, TV로 예배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몸에 배면 너무 편한 예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굳이 교회가는 것보다 편하게 영상예배를 선호하여 편리한 기독교, 부담없이 믿는 기독교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심장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때 예배를 위해 히브리인들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소서"(출8:25) 그러자 바로는 자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출8:25), 다음은 "너무 멀리가지 말라"(출8:28), 그 다음에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출10:11), 마지막에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출10:24)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배에 대해 끝까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타협하며 타협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떠밀려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자꾸 타협하면 교회는 점차 궁지에 몰려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시론

(3면에서 계속)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 함께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할 삶의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지혜와 힘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 우울함과 낙담에 빠져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할 삶의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지혜와 힘임을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부족들

필리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족들의 문화는 유사한 점들이 많지만, 실제로 많은 소규모 언어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루손(Luzon) 섬과 민다나오(Mindanao) 섬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이 부족을 이뤄 생활하는 성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생존중심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느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화 속에서 종족별로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언어다. 많은 종족들이 같은 어계(語



系)에서 기원한 언어를 구사하지만 각 부족별 고유방언은 이웃 종족과의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과거, 이 종족들 중 꽤 많은 수가 다양한 형태의 인간사냥을 했었으며 영토분쟁에서 비롯된 종족간의 전쟁은 흔한 일이었다.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져 있지만, 약 700개만이 사람이 사는 섬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카톨릭이 주요 종교인 국가다. 최근 들어 혼란과 고난,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소외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모습

필리핀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부족들은 농민이다. 주요 농작물은 논벼(wet rice)와 옥수수이며, 채소와 담배, 커피도 부업작물로 재배한다. 농장에서는 개, 염소, 닭 등의 가축도 기른다.

가장 흔한 농사법은 화전법이며 경작지는 대개 집 근처에 있다. 농민들은 또 산비탈에 있는 계단식 관개논에 거의 의존한다. "베고 불태우는" 원시적인 농법이 아직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출량은 빈약하다. 게다가 필리핀의 많은 원시림이 파괴됐다.

민다나오(Mindanao)의 동남부 해안에 살고 있는 마노보(Manobo) 같은 일부 부족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역자주: 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걸릴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일

부 부족들은 여전히 사냥이나 채집을 주로 한다.

부족 촌락들은 주로 개인농장 둘레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필리핀 부족사회의 기본단위는 대가족이며 대개는 신랑, 신부가 아주 어릴 때 미리 내정한다. 부족은 같은 친족 간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기시하기 때문에 결혼은 이족혼인(exogamous)으로 거의 다른 부족과 한다.

어떤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부족의상도 달라진다. 어떤 부족들은 허리에만 두르는 간단한 옷(loincloths)을 입는 반면, 어떤 부족들은 현대식의 의상을 입는다.

부족들 간에 정치조직은 거의 없는 듯 보이며, 단 대부분은 마을에는 재판관이나 피고서양인의 역할에 있는 촌장(headman or chief)이나 우두머리가 있다.

신앙

대부분의 부족들은 애니미

즘을 숭배하므로 생활환경과 상황을 주관하는 많은 신들과 영적 존재들을 믿는다. 그들은 이 신들이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으며 제물과 예배를 드려 즐겁게 해주어 한다고 믿는다. 이 신들은 생물과 무생물에 모두 존재한다고 여긴다.

마을 사람들은 내생(next life)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지켜야 할 특별한 의식들이 있다고 여긴다. 이트네그(Itneg)족과 같은 일부 부족들은 정성껏 의식을 치르기 위해 여자 무당이나 영매(영적 중개자)를 통해 행사를 한다. 그들은 무당들이 마법으로 병자를 고치며 영적 존재들과 교접하고, 여러 의식들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칼링가(Kalinga)족과 같은 또 다른 부족들은 그런 영적 존재들이나 또는 "아니토(anitos)"라고 하는 신이 실제로 내세로 떠나지 못한 죽은 친척들의 영혼이라고 믿는다. 칸카나이(Kankannaey) 부족에서는 사제직을 여성보다 남자가 주로 맡는데 그들의 제

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물은 돼지다.

마노보(Manobo)부족들은 아직도 "천상의 세계(sky world)"에 살고 있는 어떤 최상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를 조금 접해본 적이 있는 비누키드(Binukid)족을 제외한 다른 부족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제사와 영혼숭배에 깊이 익숙해 살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문명에서 소외됐던 이런 부족들도 이제는 서서히 현대세계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에게는 나은 의료시설과 좀 더 현대적인 농사법, 교육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많은 부족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해서 성경번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뉴욕주 5월 '경제 재가동' 언급

미국의 일부 주가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 가운데 뉴욕주도 5월 중순 '단계적 경제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다음 달 15일 이후 일부 사업체가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인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 1단계에서는 제조업·건설업 중 '저위험' 사업을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기업별 평가를 통해 영업 재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2단계의 경우 기업체·점포가 스스로 재개장의 위험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내놓도록 요구했다. 그는 2단계 재가동 조치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려면 학교도 개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지아주와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24일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체육관, 볼링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허용했고, 텍사스주도 같은 날 소매점에 손님이 가게 앞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형태의 영업을 허락했다.

알래스카주는 식당과 미용실 등이 수용 인원의 25% 이하만 받는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하와이주도 25일 낚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빙을 개방했다.

본격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나서는 주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한 미국 확진자 수는 여전히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31분(미 동부 시간)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96만4937명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296만5363명)의 3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망자는 5만481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백신, 빠르면 1년내 대량생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빠르면 1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26일 미국 CNN방송의 '파리드 사카리아의 GPS'에 출연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1년 안에(백신) 대량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게이츠는 백신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대중이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앞서나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과 나는 지속적으로 18개월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의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다.

앞서 게이츠는 지난 3일 시사 풍자프로그램 '데일리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빌&멜린다 게

이츠 재단'이 유망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7가지를 선정한 후 각각의 생산 공장 구축을 후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이츠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도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대처에 "전적으로 집중"한다고 언급했다. 게이츠 재단은 보유기금이 4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이미 코로나19 대처에 약 2억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코로나 옮겨줄 더 위험...

올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파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독감 시즌과 겹칠 경우 더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21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올 겨울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된다면 이번 팬데믹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2009년 A형 독감이 유행했을 당시 봄에 발생한 '1차 파도'보다 그해 가을과 겨울 독감 시즌에 발생한 2차 유행 때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가지의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퍼지면 보건 시스템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레드필드 국장은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까지 4만3000여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첫 번째 유행을 통해 자국 내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향후 몇 달 동안 앞으로 있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택대피령이 해제되더라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빠짐없이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만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보건당국자들이 올 여름동안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반드시 맞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를 줄여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1차 확산은 다행히 겨울철 독감이 사그라진 이후에 시작됐다.

레드필드 국장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만약 이번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은 시기에 정점에 도달했다면 의료시스템은 더욱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CDC에선 현재 500명의 직원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레드필드 국장은 "65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 등 코로나19로 가중된 업무를 맡

길 것"이라면서 "인구조사국 등과 협력해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방안도 주 정부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미국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톰 프라이드 전 CDC 국장은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는 데 30만명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와 지방국민보건연구관리자협회(ASTHO)도 최소 10만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36억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최근 미국 곳곳에서 자택대기령 등 주 정부의 규제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국 선교사들 '코로나 방역 도우미' 로 맹활약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와 기독교 NGO들이 현지 주민들을 도우며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김지혜 선교사는 22일 몽구 지역 리와니카병원에 276개의 면 마스크를 기부했다. 현지 재봉사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다. 청소년센터와 교도소 등에도 마스크를 기부했거나 기부할 예정이다.

김 선교사는 "병원에서도 일회용 마스크를 한 달씩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일거리가 없는 현지 재봉사들을 고용해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스크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나라의 노연실 선교사는 사역하는 공부방 어린이 36명에게 가루비누와 세숫비누, 휴지, 치약·칫솔 등을 지급한 뒤 자주 씻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집에 머물 것도 요청했다.

잠비아는 22일 현재까지 의료인 9명을 포함해 7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명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는 이규성 선교사도 3주간의 이동제한조치(록다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초식량 긴급지원팩과 마스크를 나눠줬다. 이 선교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겨 한 달 전 중국 마스크 수입업자를 통해 2000여장의 마스크를 미리 확보해 냈다. 현재 200세대에 마스크를 나눠준 상태"라고 했다. 긴급지원팩에는 옥수수가루나 빵을 만들 밀가루, 쌀, 콩, 설탕과 식용유 등이 들어있다. 남아공은 록다운 27일째인 22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635명, 사망자는 65명이다.

파푸아뉴기니의 A선교사에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A선교사는 "'한국 정부에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는 게 정식 루트'라고 설명하고 상세한 절차를 알려줬다"고 전했다.

기독교 NGO인 사랑밭과 월드쉐어의 에티오피아지부는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의 김경만 교수와 협업체 플라스틱 얼굴 가림막을 만들었다. 아이디어는 독일 국적의 바이오메디컬공학자인 김 교수가 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림막의 탈부착 부분을 만든 뒤 얼굴 전체를 가리도록 OHP 필름을 잘라 붙이는 방식이다. 김 교수에게 가림막을 받은 사랑밭 박현아 지부장

은 에티오피아는 물론 주변 국가의 의료진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초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재훈 선교사에게 50개를 보냈다. 지부에서도 정액점 선교사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 가림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 70개를 보낸다. 박 지부장은 "전기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3D프린터도 한 대뿐이라 하나 만드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면서 "에티오피아에도 조만간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좋다. 잠비아의 김 선교사는 "아시아인이 코로나19를 옮긴다는 인식 탓에 초기엔 현지인들과 접촉도 못했다"면서 "최근엔 마스크 덕분인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SIM선교회 소속 박성식 선교사는 "선교사 개인이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당 지역 선교사들이 단일 창구를 만들어 대사관에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을 공식 요청해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슬림 위한 30일 기도운동 시작"

국제예수전도단과 프론티어선교회 등 국제선교단체들은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사항 중 하나로 모든 무슬림은 매일 해가 뜬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해야 한다. 올해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선교회 관계자는 "30일 기도운동은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운동"이라며 "지난 20년간 예수님을 따르는 무슬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결과"라고 밝혔다.

30일 기도운동은 1992년 중동지역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운동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영적 흐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교회 측은 "코로나19로 무슬림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무슬림 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기도제목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이슬람 파트너십(ipkorea.org)에서 구할 수 있다.

"한국 조작선거..." 왜 백악관 청원에?

일부 보수 유튜브와 나선 의원 등이 제기한 4·15 부정선거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도 등장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는 지난 18일 '한국 선거가 여당과 문재인에 의해 조작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서 정당 지지율 차이는 10~15%였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당별 지지율은 7% 이내로 집계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미 설치된 CCTV는 모두 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95. 백신구(1873-1947)

백신구(白信九)는 1873년 10월 6일에 평양에서 서당 훈장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 신학교 교장 사무엘 마펏(마포삼열) 선교사의 한국 어 교사였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졸업하지 않았는데 장녀 메리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미주 한인사회에서 그를 목사로 지칭한 적은 없다. 그러나 마포삼열이 그를 자비량 전도자가 될 것을 권했을 것이다.

백신구는 가족 3명을 데리고 일본 고베에서 시베리아 선박에 의지해 1905년 5월 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후 오아후섬 에바 농장에서 팡이질하며 잡초를 뽑았다. 이곳에 에바 한인교회회가 있었다. 1904년 말 본 교회에 56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이듬해 12월에 김영식이 교역자로 부임했을 때 135명의 등록 교인에 출석교인은 200명이어서 하와이 한인교회 중 가장 큰 교회였고, 1906년 5월에 건축한 에바 예배당은 최초의 자체 예배당이었다. 백신구는 설교자가 없는 주일에 설교했다.

보에 기고한 아래의 글 "고국 함경남도 문천군 기근에 대하여 의견 모집하는 취지서"에서 그의 목회적 마음을 읽게 된다.



백신구(1905년)

사람의 가장 참혹한 재앙은 흉년에 더 심함이 없다 할지라. 수확의 큰 재년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 되어 불행한 자만 불행하거나 흉년이 한번 지낸 곳에는 곡형 채식이 들쳐며 야포 강사가 구학에 가득하여 그 참혹측단한 형상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즉금에 우리가 내지 통신을 열람하건대 함경남도 문천군에 기근이 지심하여 주려 죽는 자가 연속부절하고 살아있는 자 기갈이 자심하여 천백 명 동포가 그 얼굴의 누른 빛이 우리 눈앞에 암암한지라.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며 어찌 먹고 입는 것이 편안하다함이오. 현금 내지에서 의견을 모집하여 구휼을 행할지라도 우리 해외에 있는 자 마땅히 조력하지 못할지라. 연전 상항 진재와 작동 이탈리아 진재에는 각국 사람이 의견을 모집하여 수다한 전곡을 보내 었거든 하물며 우리의 동족이 참혹한 재앙을 당하여 주려 죽는 지경에 임한 것을 생각건대 어찌 우리가 안연히 있으리오. 그러므로 우리 등이 임시 특별회를 열고 당장 의연한 돈이 30여불 이음고, 또한 의론하였오이 의연금 수합소는 상황에 우리 국민회 총회로 정하여 의연금의 수취한 도수를 5월 안으로 내지에 부치기로 기약 하였습니다오 인인 군자의 동포 제군은 더 내지 문천군 기천기백의 호호 천연하는 정경을 그옥이 생각하여 다소 를 아끼지 마실지어다.

크레어몬트로 이주하던 1910년까지 약 4년간 백신구가 리버사이드 교회를 섬겼다고 보면 된다.

식당일에 지친 아내의 건강회복방법은 이주였다. 1910년에 백신구는 가족을 이끌고 대학촌 크레어몬트로 가서 통조림 공장 너머 철로 옆에 살면서 아파트 빌딩 청소원으로 취직했고,

그의 아내는 손빨래하며 돈을 벌었다. 크레어몬트에도 한인장로교회가 있어 낡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위의 방화중 선교사가 방문하지 않는 주일은 백신구가 본 교회를 섬겼다.

학생양성소 겸 예배당 건축을 위한 5인 건축위원회에 백신구가 방화중, 이상규, 임동식, 정등엽과 위원이 되었다. 본 건물은 2층 양옥으로 2인 기숙 방 8개, 온수가 나오는 목욕탕, 식당, 주방,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포치도 있었고, 8, 9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다.

1911년 11월 15일 자 신한민보에 게재된 건축현금 명단 중 크레어몬트 거주자는 본 교회 교인으로 보면 된다. 그들은 임동식, 김윤옥, 김중옥, 김중혁, 이상규, 변기현, 김기만, 김장삼, 백신구, 이건승, 김관우, 임정구, 한삼봉, 정락산, 정원석, 박부인, 이인영, 강영대, 정등엽, 서세순, 한기갑, 김원택, 환원석인데 총 121달러 50센트를 헌금했다. 백신구가 크레어몬트 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던 1911년 가을까지 그의 사역은 길어야 2년간이다.

생활고에 백신구는 1911년 가을에 중가주 풀루사로 이주했다가 이듬해 로버트 아일랜드로 이주하여 감자농사에 뛰어들었으나 감자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친구 이병준의 소개로 1913년에 수은 광산이 있던 중가주 아이드리아로 이주하였다. 그는 광산 용광로에서 노동했다.

목사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교회예배에서 목사가 없을 때 설교 맡아 자비량 전도자로 고국 기근에 후원금 독려, 예배당건축에 적극협력

이곳에서도 예배를 인도했다. 1914년 5월에 서간도 동포 기황구흥금을 낸 명단이 교인이 아닐까 싶다. 기부한 자는 이병준, 한준상, 한치홍, 강병림, 김호식, 임석현, 임선봉 그리고 김재환이었다. 백신구는 체중이 급격히 빠져 더는 중노동을 할 수 없어 1916년에 델라웨어로 이주한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쌀값이 폭등하여 벼농사 경험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이만한 사업이 없었다. 백신구가 1917년 초에 북가주 델라웨어에서 75 에이커에 벼농사를 경영했던 이유다. 가장 크게 한 자는 1030에이커의 김종림이었고, 박영순의 240에이커, 이진섭의 150에이커, 황명신의 80에이커, 임지성의 80에이커 순이었다. 1918년 9월에 한인들이 김종림의 농장에 모여 국치기념식을 가진 후 총 99원의 국치기념적립금을 의연했다.

의연한 사람은 백신구, 박영순, 이상길, 신광희, 김중림, 사덕순, 임선봉, 음대영, 마준봉, 송철, 최봉진, 이재수, 김두호, 문양목과 그의 부인, 이흥민, 윤 흥과 그 부인, 염치택, 노종철, 황치옥, 임남조, 이석일, 양주은, 강희중, 정동호, 이성환, 신달원, 김기

후, 강대근, 최봉익, 이지완, 전득부와 그 부인, 최봉민, 이인신, 송오교, 유도보, 백일규, 윤승호, 최창진, 윤 혁, 김당연, 임치호, 김경보, 음재원, 오림하, 장한조와 그 부인, 김주희, 강형섭 등 51명이었다.

이들 중 델라웨어에 거주한 자는 백신구의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다. 같은 달에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건축현금 모금에 백신구가 2달러 50센트를, 그의 부인 백광선이 1달러를 헌금했으니 부부의 교회 사랑은 남다르다.

백신구는 북가주 맥스웰로 이주했다. 1918년 10월에 백신구는 500에이커를 경작했으니 벼농사에 함께한 한인들이 그의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 외에도 김종림의 1,800에이커, 박영순의 700에이커, 신광희의 500에이커, 이진섭의 250에이커, 김인수의 200에이커, 송덕옥의 50에이커의 한인 노동자들이 예배에 동참했을 것이다. 그해 비가 뿌려 실패했던 백신구와 한인 농주에게 의외로 풍작이었는데 그해 추수감사절은 풍성했었다.

그 후 백신구는 월로우스로 이주했고 시 외곽 철로에서 한 블락 떨어진 곳의 중국인 소유의 오래된 집에 들었다. 이 집이 월로우스 한인교회당이 되었다. 주일에 7가정이 모여 오르간 없이 찬송을 부르고 그가 간단하게 설교했고, 그의 부인은 점심을 대접했다고 장녀 메리가 적었다. 아이들은 옛 친구를 만나는 주일날을 기다릴만

했다. 그러나 헌금시간은 없었다.

한인들은 그에게 상담했는데 그의 큰딸 메리가 통역하여 저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의 아들 어니스트가 11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지역 신문 '더 월로우스'가 개교 이래 가장 어린 학생이라고 대서특필하여 한인들의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다. 1918년 11월 16일에 이인서의 부인이 5살 딸을 낳겨두고 멕시코 독감으로 홀로 별세했다.

이튿날 17일 주일 하오에 한인 10여 명과 동 지방 백인 남녀 내빈 36명이 모인 가운데 백인감리교회에서 바트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한 후 발인하여 장지로 나가는데 3척의 자동차와 무수한 생화와 및 백인 부인 찬미대가 호상하여 산상에 이르러 백신구와 한인들이 땅을 파고 백신구의 사회로 하오 4시 30분에 하관 예배를 드린 후 안장했다. 이듬해 1월 1일에 백인 월로우스장로교회에서 백신구의 딸 메리와 이흥만이 결혼하여 교인들은 다시 기쁨을 찾았다.

월로우스에 흥수가 나서 벼농사에 실패한 백신구는 워싱턴주 약기마카운티 내 이스트 와파토로 이주하여

색선 25지구의 벼농사 노동자가 되었다. 그는 퍼스트 스트리트 607번지의 약기마 지방회관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나 15마일 떨어져 있어 매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920년 3월 1일에 그의 사회로 삼일절 제2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순서 담당자들은 예배에 참여했을 것이다. 국가기를 부른 이은성, 기도한 임단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기연, 독창한 최하승, 헌법을 낭독한 김준호, 경축사를 한 유희찬, 독창한 현혜신과 조경지, 연설한 이성로. 이듬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백신구가 연설했는데 이날 순서 맡은 사람 중에 새로운 이름이 보인다. 사회자 김순호, 기도한 이근성, 개회사를 한 김성하,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형태, 창가를 한 김애니와 이춘자, 연설한 김영근 등도 교인일 것이다.

백신구는 1926년에 유타주 트리몬톤의 카운티 로드 선상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에 뛰어들었다. 이곳에는 그의 가족 10명을 포함하여 김승규와 김영근의 가족이 있었으니 백신구가 예배 인도를 잊지 않았고, 한국어 가르쳤으니 그가 교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1928년 7월 9일에 폐쇄 앞에서 놀다가 김영근의 2살 반 된 넷째 자녀가 실족하여 사망하는 참상이 있어 백신구는 그의 가정을 심방하고 위로하였다. 이듬해 2월 백신구의 장남 명선이 결혼하여 기쁨을 회복하였다.

백신구는 나성 인근 휘티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했다. 1936년 11월에 본국 수재 구제금을 낸 명단에 백신구가 있었다. 이듬해 11월에 본국에 계신 부친께서 노환으로 별세하셨다는 부음을 받고 애동망극했다고 한다. 부친 별세 2년 후인 1939년 10월 24일에 마포삼열이 문로비아에서 소천한 비보에 이어 신한민보에 본보 주필 동해수부(홍인)가 기고한 1939년 11월 9일자 신한민보의 "서세를 애도함"에서 백신구가 또 한 번 애동망극했으리라.

1941년에 그의 7남 3녀 중 네 아들이 자원하여 입대하였는데 '결혼한 장남 랄프가 동생들이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보고 형이 되어 집에 편안히 있을 수 없다 하여 부모는 누이와 아내에게 말하고 왜적과 싸우는 전선에 나설 터라 하니 5형제의 종군은 전사 한인의 진화로 전할 만한 일'이라고 신한민보는 적었다.

해방된 지 2년 후인 1947년 7월 20일, 백신구는 휘티어의 자택, 웨스트 하드리 스트리트 1005번지에서 향년 7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몽양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 안무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청년예배: 오후 8:30(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주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5: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hanmail.net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어거스틴의 “고백록” (7)

제10권: 현재의 자신의 위치: 기억, 유혹, 예수 그리스도

제11권: 성경 이해를 통해 진리에 인도될 것을 바라며

1) 현재 힘포의 주교로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를 이야기한다.

2)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될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①우리는 감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②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상이 저장되어 있는 인간의 기억 능력과 그 본질에 대해 많은 양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한다. ③기억의 힘은 위대하지만, 하나님에 이르려면 이것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④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라는 것과 영혼의 모든 병을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찬미한다.

3) 기억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위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한 후에 10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기억이라는 넓은 궁전을 올바르게 탐험할 때라고 강조한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기억의 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되살리는 것(기억하기 remembering). 둘째, 기억 안에 존재하는 생각하는 능력(생각하기 thinking). 마지막 요소는 기억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 여행하는 것(회복하기 reintegrating)이다. 이 세 요소들이 가진 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준다고 고백한다.

1)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두 구절에 대한 주해에 착수한다.

2)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왜 천지를 만들 생각을 하였는지” 라는 반문을 대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원과 시간을 대비하면서 상세하게 전개한다.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이 부분이 이 책을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철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고전으로 자리 잡게 만든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3) 의미 있는 시간(kairos)

그는 회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되는 하나의 통일체로 사고하는 의미 있는(카이로스적)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 돌아온다. 의미 있는 시간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나란히 겹쳐 놓임으로써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초자연적인 시간이다. 이 시간은 사라져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존재의 시간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작용이 연속성을 지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가 자신의 내면의 치부를 솔직하고 치열하게 고백한 것은 바로 그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4) 자기 성찰의 의도

왜 하나님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자기성찰을 하도록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

가는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반성적 시각 없이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일반 세속 철학과 신학의 큰 차이점이 ‘시간’에 대한 관점에 있다. 세속적 철학은 시간의 문제를 죽음의 부름으로 보는 반면, 어거스틴은 시간을 영원의 부름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를 질문한다.

제12권: 창세기의 주해 계속(1)

우선 하늘에 대해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은 하늘을 구별하고, 보이지 않은 하늘, 즉 ‘하늘들의 하늘’이란 하나님에 게 의지하여 항상 그 영원성에 참여하는 예지적 피조물(천사)이고, 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물체적인 것이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질료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다’라고 말한다.

13권: 창세기 주해 계속(2)

12권에 이어 창세기 1장의 주해를 계속한다. 그리고 마지

7. 나가면서

이 책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가운데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필독 고전목록이며, 자신의 깊은 내면 성찰을 위해 꼭 한 번 읽어야 할 책 중의 한 권이다. 그의 고백록이 오늘날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인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13장 13-14절은 모든 것이 현실이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현대적인 메시지이자 어거스틴적인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 돈과 이성의 문제인데, 교회 내에서마저 이런 가치들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세속적 가치와 정욕적 행복을 추구하는 흐름이 들어왔다면, 신자는 고백록을 통해 이런 과정에 대한 회개와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인들에게 돈, 정욕, 명예로 만족시킬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

을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의 언어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시대의 방자들이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다. 또한 행복의 추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의 메시지가 되어 복음을 전파할 때 현대인들이 복음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절대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고백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고백록이 함유하는 회개와 변화, 증거와 사랑의 메시지를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사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부활의 광명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라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의 은 일방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혼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을 안 해도 된다고...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진다고...(롬4:5).

해마다 맞는 부활절을 지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남의 광명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다시 부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일년내내 손발이 부르드도록 일해도 여전히 고통함을 면키 어려운, 그야말로 고통을 몸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가슴에 부활의 광명이 은 총으로 다시 임하면 좋겠다. 매일 같이 봐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 속에 맺힌 앙금들이 사라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깨진 관계들 속에 진 가슴속 응어리들도 저절로 풀어지는 ‘부활의 광명’이 감격스럽게 다시 새롭게 임하는 부활의 날들로 이어지면 좋겠다.

벌써 4월도 마지막 주를 넘었다. 점점 더 짙어지고 커가는 나무들과 조금씩 가벼워지는 옷차림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그 봄과 함께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어야 할 텐데... 늘 자기 몸인데도 자기 맘대로 못해서 아픔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 매일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살아가는 갑갑한 가슴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람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꼭 닫힌 마음들... 아니 자기 가슴이 시키는 일조차 모른척한 채 짜증나고 흘러가는 대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 이런 모든 짝 막힌 가슴들 속에 ‘부활의 광명’이 새롭게 찾아오는 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픔이 가고 아침이 오면 그 아픔을 열어주는 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그 숨결을 알아차리고 주제가 분명한 날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령스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 길은 필경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되리라.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한다. 그러려면 매일 같이 보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누구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도록... 비굴하지도, 아첨하지도, 거만하지도 않는 매일을 태연하게 맞이하도록... 아니 더 나아가 남이 잘되어 가는 것도 고마워하며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내 몸과 마음을 휘감는 ‘부활의 광명’을 맞고 싶다.

구름 아래 사는 우리네들... 때로는 그 구름이 비가 되고 눈이 되고 햇볕막이가 되고 그리고 심한 광풍이 되고 토네이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구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죽어도 잊지 않으며 언짢은 말 한마디도 꿀꺽 삼켜버리며 고통스럽고 아픈 몸도 여루만져주면서 그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구름 너머 비취는 ‘부활의 광명’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changsam01020@gmail.com

성경 이해하는 절대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 책이 함유한 회개와 변화, 증거와 사랑 메시지 적용해야

막에,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기도도 책을 마친다.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원한 평안을 구하는 뜻을 나타내었던 어거스틴은 죄를 고백하다가 8권에 이르러 바울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으나 낯은 습관에 사로잡혀 결심하기 어렵던 때 밀라노의 정원에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하늘로부터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둘째 부분(10권)은 현재 히포의 주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자서전적인 앞부분과 철학적인 뒷부분의 내용을 이어 주는 부분이 된다.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부분(11-13권)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주해를 통해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분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일용복제(월-금): 오전 5:3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어권(청소-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 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ars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예배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복제):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thel@kbc.org / www.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엘피스타지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화전략교회 협동목사) 생일사제(월-금) 오찬사제-오후사제(토) 사제: 1. 이영사제 2. 김성민사제 3. 김성민사제 4. 김성민사제 사역: 1. 회개사역 2. 가정사역 3. 상담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ta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제기도시간: 365일 24시간 모은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모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익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여성들이 위하여” 오전 9:30 오후 7:20(금)



목회서신

그리스도인의 정치관



여승운 목사 (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

한국은 드디어 4.15 총선이 끝났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두 그룹으로 나뉘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참 많을 것이다. 가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회사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교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우파를 욕하지 않으면 좌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좌파를 욕하지 않으면 우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파에 속한 목회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요청을 한다. 그런데 좌파에 속한 목회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요청을 한다.

우파에 속한 목회자들은 좌파 정치인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좌파에 속한 목회자들은 우파 정치인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우파와 좌파의 깃발을 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나누어지고, 목회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우파를 욕하지 않으면 좌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좌파를 욕하지 않으면 우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파와 좌파로 갈려서 다투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 어떤 사상 체계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우파와 좌파로 구분한다. 이번 총선

의 결과를 하나님의 승리 혹은 패배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거룩한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상은 모두 인간은 선하다는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먼저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고 선언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점점 약해져가고 퇴보하는 것은 사회 구조와 제도들이 사람들을 제대로 개발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건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건 모두다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변혁 시키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려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치명적인 영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이상숭배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국가를 해방자로 여기며 국가를 우상화 한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경제 시장을 해방자로 여기며 경제 시장을 우상화 한다. 국가를 해방자로 여기는 사회주의는 개인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한다. 반면에 경제 시장을 해방자로 여기는 자본주의는 인간을 한낱 경제적인 동물로 격하 시킨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둘 다 성경의 관점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파나 좌파나 이 정당이 나 저 정당이나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정치적 해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해

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느 정치 집단이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혼의 자유를 심어줄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소망과 영혼의 자유만이 개인과 가족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데올로기적 사상에 매몰된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살리는 주체가 아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각 분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므로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하는 것이다. 우파든 좌파든 어느 한쪽 사상 체계에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 집단을 위한 것이다. 우파든 좌파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느 한 사상 체계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사람

들과 사회는 점점 괴물화 되어 간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고 결국은 서로 간에 전쟁을 치르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성찰해 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우파와 좌파로 구분한다. 우파에 속한 정치인들은 좌파에 속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고 좌파에 속한 정치인들은 우파에 속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할 사람들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파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좌파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비전과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인/터/뷰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준비 중인 강순영 강태광 목사 청교도 이주 400주년...미국을 깨운다



국가기도의 날을 준비중인 강태광 목사(좌), 강순영 목사(우)

회 지도자들을 만나왔다고 전했다. "3개월 여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라 5월 7일 국가기도일까지 미국내 한인교회가 깨어나서 기도도 무장해야 하거든요. 50개 교회 방문계획을 잡고 북가주를 첫 번째 방문했으며 네바다 라스베가스, 아리

강순영 목사는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는 영적으로 수면상태인 미국을 깨울 절호의 기회라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모임을 제한시켜버린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것이 제한된 것이 우리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

도회가 지나고 보면 행사로 그쳤었다"며 "온라인예배 활성화가 이번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를 통해 미주한인교회는 물론 미주사회가 하나님중심으로 돌아올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는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를 마친 후 온라인기도회 시스템을 할 것이며 하반기에 열릴 다민족기독교대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위해 청교도예배 찬양을 5천부 발간했으며 평신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교도 이주 4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기도회를 통해 한인들로 인해 미국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교도들로 인해 세워진 이 나라 미국, 한인들로 인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즉 한인들이 제2의 청교도로 준비가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으면 합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 세계기도모임 서부지회, 자마, 세해한인교회가 공동주관으로 갖게 되는 제69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는 5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본당에서 열리며 미주복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7시부터 9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기도회는 30여명의 기도 강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나와 △회개 △코로나19 극복과 국가지도자들 △청교도 신앙회복 △고국을 위해 등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한다.

▲문의: (213)675-6493, (714)484-1190 (박준호 기자)

5월 7일 오전10시-정오 미 전역 한인교회 유튜브 생중계 한인들 제2청교도로 미국위한 기도운동, 책자 5천부 발간

며 미국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한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히 세속화가 되기 전 미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였습니다. 헐리우드만 하더라도 벤처, 쿼바디스, 심계 등 수많은 성경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헐리우드는 폭력물과 선정성이 강한 작품들은 물론 성경 속 이야기도 소재만 성경 이야기이지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순영 목사는 미국의 신앙회복운동을 위해 1월 27일부터 미 전역을 순회하며 한인교

만에 젖어있는 선진국들이 질병을 통해 무기력한 자신들을 발견한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기회입니다. 또한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긴 것이 부모들의 잘못이었는데 거의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하게 됐으며 그것은 가정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태광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축복이 됐다고 언급했다. 강태광 목사는 "그동안 연합기

국가기도의 날은 1952년 5월 첫째 목요일 시작된 이래 미 전역에서 일제히 열려왔다. 제 69회를 맞이한 올해는 특별히 청교도 이주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의미가 남다르다. 이를 위해 강순영 목사(자마대표/청교도400주년운동본부)와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청교도신앙회복운동 사무총장)를 만나보았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는 청교도 이주 40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한인들에게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이자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미국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졌고 미국을 위시한 UN의 도움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됐다"며 "미국의 은혜를 받았는데 미국의 현실을 보면 청교도들의 신앙이 많이 쇠퇴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이곳에 우리 한인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을 통해 미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에 은혜를 갚는 길"이라 강조했다.

강순영 목사는 작년에 자마 설립자 김준근 교수로부터 '청교도 이주 400주년이 되는 2020년 미국을 위해 기도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설 수 있게 됐으면 한다'며 기도운동에 대해 권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교도신앙회복운동을 위해 기도회 준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 대한 책을 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공한 이민그룹이거든요. 그들의 삶에 대해 김경일 목사님 중심으로 논문자료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자료들을 모아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서적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의 삶은 성경을 사랑했으며 성경대로 살려고 했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물론 재정관리까지 성경에 입각해 살아온 자들이라 설명했다.

"청교도들은 영국으로부터 분리주의자라고 핍박받아 네덜란드로 건너갔지만 네덜란드의 세속화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죠. 그들은 미국에서 주일엔 항해와 여행을 비롯한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는 전통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루 두 번 가정예배를 드렸으며 어머니 교리문답을 만들어 엄마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예수를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성경을 교과서로 지정해 가르쳤으며 중학교부터는 기독교 고전 작품을 가르쳤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100여개의 대학에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강순영 목사는 "청교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중심으로 살았다"며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과 이발사들이 손님들의 머리를 깎는

것,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것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중심사상에 입각해 살아온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미국인들이 삶이 풍요로워지다보니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으며 그것은 유대인들이 삶이 편해질 때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라 지적하

기본에 충실...하나님...

(2면에서 계속) 7. 일정한 생활규칙을 세우고 준수하라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는 모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일과가 있을 때 좋은 성과를 낸다. 현재는 우리의 가족, 개인, 그리고 업무 등 모든 일과가 엉망이 돼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와 염려의 정도는 실로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유가

점점 제한될수록 더욱 큰 실망과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

변화와 예측 불가능에 대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변화와 염려에 대해 까탈스러움, 분노, 좌절, 포기, 슬픔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징후와 증상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라.

덧붙여서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과 더불어 규칙적인 수면습관, 식사시간, 노는 시간, 공부시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규칙

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 도움을 줄 수 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 일종의 리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8.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라

친지와 이웃이 어떻게 지내는 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을 향한 염려가 다른 이들을 위한 염려로 바뀌게 된다. 이웃이 잘 지내는지 알아보고, 함께 식사도 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해보고 어떻

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9. 필요할 때는 지원을 요청하라

격정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자녀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회 목사나 리더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라. 목사는 가족을 목양하는 당신을 목양하기 위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이다.

이에 더해 당신이나 지인 중 누군가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재 거주 지역에 있는 많은 상담가와 정신건강 전문

가들이 화상으로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10. 당신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여유시간을 보내라.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책을 읽어라. 가능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기도모임, 소그룹 모임, 아니면 친지들과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라.

11.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4:4). 이럴 때 더욱 그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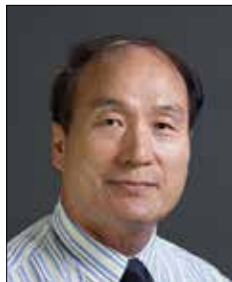
△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묵상하라(시 115:3).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부산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일, 건강, 재정, 가족 등 당면 시해했던 모든 복에 대해 주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5).

투/고/칼/럼

박시경 교수
그레이스신학대학교



불확실성의 위기에 선 교회와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에 즈음하여 -

“가히 치명적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잔인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바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명명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 전염병 현상이다. 전쟁도 이런 참혹한 전쟁이 없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말이다.

그리스도의 지상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예배의 형태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의 뇌리 속에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예배 형태의 변화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봐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 재앙이 한국 교회의 선교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지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 예배만 해도 한국의 대도시의 대형교회 중심으로는 잘 준비된 예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농어촌 소규모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언급생심이 다. 교회도 노령화 된 성도들도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을 현실화 하는 것과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난해하기만 하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구가 밀집되고 보건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조차 벅하다.

멀리까지 갈 것 없이 현재 미국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2020년 4월 17일 현재 89만명의 확진자와 50,363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데, 이 통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상승곡선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한 번도 전 국토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미국 땅에서 전대미문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대전 전후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확연히 구별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가 상당한 규모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물적 교류가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여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세계화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국가 간 협력과 이해증진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이기주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존 파이버(John Piper)목사의 신간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리스도”(Coronavirus and Christ)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책이다. 그는 이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얇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

- 1. 현재 우리사회의 도덕의 붕괴 2.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숙고 3.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성 회복에 대한 심각한 재고 4.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선행 실천 5. 고난을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음. 여기서 그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고난(행 8:1-6)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사도행전 8장1-6절은 그 고난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는 이 고난과 박해를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대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고난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부터 온 것이었다. 재산과 가족과 시민권을 잃은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다. 그의 이름은 유세비우스(Eusebius Pamphili)라는 유대인 출신 교회역사가이다. 그가 서기 314년에 가이사랴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된 것을 보면, 로마황제 콘스탄틴이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해와 거의 겹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병이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할 때,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을 그는 놓치지 않고 그의 저서 Historia에 기록하고 있다. 서기 236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현재 아프리카 튀니지)를 강타한 전염병에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교세가 유럽대륙 못지않게 우세한 지역이었다.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와 같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굳게 붙잡고 격려하며, 병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다녔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전염병에 걸린 이웃을 도우면서 기꺼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죽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항상 예의 표현으로만 사용하던 말들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한 폐기물로 여기며 실제로 행동하였다.”

어떤 신학, 어떤 논리, 어떤 설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관해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것이 아니었음을 위의 글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죽었다.”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 무지막지한 사랑의 헌신은 현재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될 뿐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 안에서만 접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랑의 헌신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stephanos08@gmail.com

뉴저지교협, 5월 7일 국가 기도의 날 참여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는 5월 7일 ‘국가 기도의 날’에 맞춰 뉴저지 한인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뉴저지교협은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ZOOM 영상을 통해 임시임원회를 갖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이 행사는 5월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열리며 CTS뉴욕, 정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 JAMA, 뉴저지한인

목사협의회, 뉴저지장로협의회가 협찬한다.

기도회는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하며 큰 기도제목 5개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 기도제목(4-5개)으로 합성기도와 대표기도를 하며 기도자 참여는 전 회장단을 중심으로 회원교회 담임사역자들이 맡는다. 영상제작 협조는 CTS뉴욕이 협력한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뉴욕목사회 임원들이 회원들을 찾아 쌀을 전달했다.

뉴욕목사회, 회원들에게 쌀 전달

뉴욕한인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회장과 임원들은 직접 회원 집을 방문 50파운드 짜리 1포대를 전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 다 어렵지만 지난 금

식성회를 마치고 남은 잔여금으로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어 마련된 자리”라며 “회원목사들이 힘을 낼 것”을 당부했다.

쌀 전달은 형편이 어렵거나 병 중에 있는 목사 및 공동체 사역자들을 우선으로 30명에게 전달됐다.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한인간호사협회, 뉴욕엘머스트병원, 뉴저지 홀리네임병원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보교 등 의료기관에 마스크 3,500개 기부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TF와 시민참여센터가 뉴욕의 의료기관을 찾아 마스크 3,500개를 기증했다.

이 마스크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전한 기금으로 구입한 1,200개,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와 뉴욕한인여성교회연합회에서 2,300개를 모아 지난 4월 9일과 10일, 뉴저지 홀리네임

원 1,000개, 한인간호사협회 500개, 엘머스트 병원에 2,000개를 각각 전달했다.

전달한 N-98 마스크는 N-95보다 더 좋은 품질로 의료진이 사용하는 마스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마스크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총무 김명래 전도사를 통해 구입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양희선 집사, 이종철 펠릭 부시장, 크리스정 펠릭 시장, 피터고 집사

뉴저지 뿌리깊은교회, 타운에 크롬북 10대 기증

뉴저지 뿌리깊은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크롬북 10대를 기증했다. 동 교회는 지난 부활절 헌금 전액으로 구입한 크롬북을 펠리세이즈 팍 타운에 7대, 3대는 교회가 선정

서유미비자/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전달했다. 조항석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뿌리깊은교회)

2희망재단, 뉴욕가정상담소에 후원금 전달

21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과 김승도 복지위원장이 뉴욕 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를 방문,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가정상담소의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5,000달러의 기금과 마스크 200장을 전달했다. 21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기금은 뉴욕가정상담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서류미비자 한인가정 중 10가족에게 각 500달러씩을 지원하게 된다. 21희망재

단은 지난해 12월 소외계층 및 저소득 한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변종덕 전 뉴욕한인회장이 사재 220만 달러를 기부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미주동포 코로나19 희망 나눔 후원회가 LA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의료방호복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LA카운티 의료방호복 전달 기증식

미주동포 코로나19 희망나눔후원회 400벌 마련

미주동포 코로나19 희망나눔후원회(회장 이병만 장로)는 LA카운티 의료방호복 전달 기증식을 24일 오후 3시 LA카운티 청사에서 열었다.

이 후원회는 지난 2월 중순 LA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 여파로 직장을 잃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인 타운에 미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소외되는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미주한인재단,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가 협력해 결성됐다.

본 후원회는 3월 15일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된 의료진들을 위한 방호복

400벌 전달식에는 희망나눔후원회 관계자들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캐더린 바걸, 황인상 LA 부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LA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 여파로 직장을 잃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인 타운에 미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소외되는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미주한인재단,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가 협력해 결성됐다.

본 후원회는 3월 15일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된 의료진들을 위한 방호복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빵과 페이스트리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

발달장애인 110명에 빵과 페이스트리 제공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차장에서...30여명은 자택 방문도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는 발달장애인 가족들 110여명에게 빵과 페이스트리를 제공했다.

지난 21일 산타페스프링스에 위치한 본 교육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행사는 링링장 거주 상원의원이 라브레아 베이커리에서 기증받은 빵을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날 행사는 사전에 이메일과 전화로 신청을 받은 80여명에게 빵 60봉지, Pastry 600개, Roll 150개를 나눠줬으며 센터에 나올 수 없는 30여명은 자택을 방문해 전달했다.

로사 장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교육과 치료를 못 받아 어려움이 커지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켓을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집에 머물면서 식비는 더욱 많

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 센터가 부모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가지로 찾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또 음식이나 생필품 정보를 한글번역해서 제공하던 차에 저희 센터 지역의 링링장 의원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됐다. 음식을 픽업하고 나누고 배달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화상 상담 박차

한인가정상담소, LA의 타지역 서비스 확장 예정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이번 4월부터 내담자들을 위한 원격화상 상담서비스를 전격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서비스는 내담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로 인해 증가된 상담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상담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욱 향상된 보안기능을 도입해 상담은 별도의 온라인 프로그램 가입이나 설치 없이 해당링크를 클릭해 화상상담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처방전도 원격상담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며 내담자의 약국으로 직접 전송된다.

안현미 상담부서 매니저는 “기존의 대면상담과 같은 고품질 서비스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원격상담이 내담자-상담사의 친밀도와 접근성을 더 높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원격 상담인 텔레헬스는 지역 간의 거리가 넓은 미국에서 꼭 필요한 상담 방식이다”며 “한국인 상담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분들을 위해 앞으로 LA 카운티 외 타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213)389-6755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 잃지 않는다!

TGC, 이탈리아서 목회하는마크오덴 목사의 '고난 중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 소개

이탈리아 세 번째 도시인 나폴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동이 폐쇄된 이탈리아 도시들 중의 하나다. 교회 예배를 포함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다.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등 공식 모임이 모두 취소됐다. 학교와 극장, 박물관과 체육관 등 모든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다. 아내와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계산대 앞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 오덴 목사(Mark Oden, Chiesa Evangelica Neapolis)는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현재 확진자는 거의 130,000명에 도달).

1. 인간의 취약성

이번에 세계적으로 찾아온 위기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결국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더 빠른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만약 그러한 위협에 처한다면, 과연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 대답은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있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편 104:15-16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혹은 '코로나19']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시103:15-16).

이러한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

2. 인간의 평등성

'코로나19'는 민족이나 나라의 국경에 상관없이 퍼지고 있다. 그것은 중국바이러스가 아니다.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바이러스다. 아프가니스탄,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 150여 개국에서 발생했다.

우리 모두는 인류라는 거대한 가족의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창1:27). 우리의 피부색, 언어, 억양, 문화의 차이는 이 유행병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세계 각국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바이러스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은 존재다. 고난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완전히 평등하며 말할 나위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3. 통제력 상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이 잘 통제되기를 원한다. 운명을 다스리고 주도하고 싶어 한다. 오늘날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가정의 난방이나 보안 시스템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핸드폰 앱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송금을 할 수 있고, 운동과 약으로 몸의 건강상태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잘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환상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쩌면 그것이 거품과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기 이탈리아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학교를 폐쇄했다가 개방하고 이제는 다시 폐쇄하고 있다. 우왕좌왕 하는 당국이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 지 모두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살균제 스프레이로 무장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가? 단지 통

그 결과 이탈리아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오덴 목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다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며 한편 이 폭풍의 눈을 들여다 보며, "주님,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나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시나요?"라고 물어보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덴 목사가 소개한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여덟 가지를 살펴본다(8 Things the Coronavirus Should Teach Us).

제할 수 있다고 보는 환상일 뿐이다.

4. 소외되는 고통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은 며칠 전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했



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다(II Mattino, March 2, 2020).

제외됨과 소외됨은 감당하기 어렵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소외를 감

인간의 연약함, 무통제력, 소외감, 두려움서 벗어나는 믿음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유일한 소망 '예수' 해독제

다. 나폴리로 돌아온 그녀는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에서 제외됐다. 최근 북부지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모임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위험지역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분명히 이러한 거리두기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나폴리 중심에 있는 한 레스토랑 주인은 최근 검진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비교적 건강한 상태지만 이웃사람들의 꺼리는 반응 때문에 슬퍼했다고 말한다. 한 신문은 그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보다 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사람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환자들은 이 경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강제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돼 살아야 했으며, 그들이 살던 마을을 지나가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다(레13:45 참조).

5. 두려움과 믿음의 다른 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매우 쉽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장소가 주변에 널려 있다. 컴퓨터의 키보드, 들이 마시는 공기,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것이 우리를 감염시킬려고 기다리고 있다. 공포를 느

끼는가?

이 위기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다. 믿음은 먼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어떤 무명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부활하며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신다.

6.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 할 필요성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때 스스로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나라와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당국을 위해 기도하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자. 확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저질환이 있고 연로한 고위험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자비를 베풀어

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게 하는 듯하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듯하다.

이 위기는 삶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중요한 것과 무의미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프리미어 리그나 새로운 주방시설이나 인스타그램은 내 생전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8. 우리의 소망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한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그리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미 더 치명적이고 확산이 빠른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 경고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공격한 바이러스 말이다. 이 바이러스는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류는 죄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유행병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 바이러스에 당면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성경말씀은 '죄'라 불리는 바

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창조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을 곳(계21:4)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7. 헛되고 헛된 삶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현실의 삶에 몰두해 있다 보면, 균형적 관점을 잃기 쉽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람과의 만남과 각종 계획들, 일과 소망 사항들, 가정생활과 휴가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서 길을 잃을 때가 많다. 아마도 이번의 위기는 우리

이러므로 감염된 세상에 들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분은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방역복을 입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음식을 드셨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아버지 하나님에게서도-제외되고 소외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 병든 세상에 이 바이러스 해독제를 주시고자,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전 11:45 EJ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영지, 율리, 찬양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영지, 율리, 찬양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새 출발의 날 ‘슈퍼 선데이’ 만들자”

포스트 코로나 5월 한국교회 대응 세미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보고 한국교회에 중장기적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가 2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흥회장이 소강석 목사는 환경적 요인과 신앙적 요인으로 나눠 변화상을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확산된 반기독교 정서, 출석 성도수와 교회 재정 감소 등으로 이 시대는 교회를 세우는 환경이 아닌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 “성도들이 현장에 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 태만이 체질화되고, 교회에는 안으면서 백화점 식당 카페는 자주 가는 세속화에 물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포맷, 사람, 마인드를 바탕으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다시 교회세움 운동’(처치 플랜팅 church planting)에 나서야 한다”며 최우선순위로 집회의 회

복을 꼽았다. 그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이 논의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디데이(D-day)를 선포하고 그날을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 ‘슈퍼 선데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려해 10일이나 17일을 디데이로 준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자”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처치 플랜팅 전략도 소개했다. 소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말들이 사이비상에 난무하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한국교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19 이후 정부 권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에 주목해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위기대응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현 21C목회연구소장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오는 9-10월 많게는 1만5000여

교회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대변화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성도들은 믿음의 역량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엔 ‘예배 사수자’ ‘가상 예배자’ ‘교회 이탈자’로 성도들이 분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목회는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며 목회자는 성도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믿음 목회’로 교회를 리플랜팅(replanting)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처치 플랜팅의 관건은 ‘목사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라고 봤다. 김 소장은 “처치 플랜팅을 기피하는 교회의 특징은 익숙해진 목회 환경에 변화를 주기 싫어한다는 점”이라며 “목회자 스스로 비전의 청지기이자 번식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코로나19 7대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800여명의 성도가 참석했으며 새에덴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한교연 ‘한기총과 통합추진작업 중단’

27일 임원회, “한국교회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27일 열린 제9-2차 임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열린 한교연 9-1차 임원회에서 권태진 대표회장에게 양기관 통합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지 80일 만이다.

이날 한교연 임원들은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태섭 목사)의 활동을 보고 받은 뒤 현실에서 양 기관의 통합은 대화 결렬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늘부로 모든 통합 추진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한교연과 한기총은 그 동안 양 기관이 분열하기 전 사용하던 7·7개혁 정관으로의 복귀와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및 회원권 문제 등 그동안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사안에 대해 양측 통합추진위원회 교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원회에서 한교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한파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한국교회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권 대표회장은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인해 가난한 이웃과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한교연이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1000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이웃,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노숙인과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한국교회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

될 수 있도록 투명한 단체를 선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문제를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에게 위임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안건도 논의됐다. 임원회에서는 교계 일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동성애’ 조항만 빼고 찬성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아닐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생존이 걸린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원평(동성애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뺐다 하더라도 다른 인권 조항에서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일단 법이 제정되면 추후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동성애 등의 조항을 개정, 삽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 외에도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문제 등에 엄청난 법적 제재와 처벌이 뒤따르게 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한교연이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는 특정 종교에 국한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포교(布教)는 ‘종교를 널리 펴다’는 뜻이다. 선교(宣敎)도 이와 비슷하게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기’란 뜻이다. ‘포교’가 불교 교유의 용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반면 전도(傳道)에 대해서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란 뜻과 함께 ‘기독교 용어’로서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국민일보에 ‘교회용어 바로 알기’를 연재한 이상훈 목사(순복음홍콩신학교 학장)는 대안적인 서고 있다면 이는 언어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불자 108인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띄웠다. 불교계에서는 ‘포교’란 용어를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보면 포교

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

초교과 목회자 ‘나라위한 기도’ 계속

‘말씀과 순명’ 모임 8월까지 정례화...코로나19 대처 등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말씀과 순명”이 한국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공감소비운동의 확산 등을 위해 기도회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교단을 넘어 기독교 공교회회를 꿈꾸며 모인 목회자들은 매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이어가는 한편 한 달에 한 번씩 1박2일의 기도원 모임도 추진하기로 했다.

말씀과순명은 22일 오전 7시 인천 부평구 주안장로교회(주승중 목사)에서 열 번째 기도회를 열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쟁 때문에 볼거릴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기 위해 목회자부터 기도하자는 게 지난 2월 시작한 기도 모임의 취지였는데, 선거가 끝난 이제부터는 아예 모임을 정례화하자고 의결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엔 개방된 형태의 목회자 새벽기도회, 둘째와 셋째 주 수요일은 초경인 중심의 기도회, 넷째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로 이어지는 철야

형식의 기도 모임을 8월까지 가질 계획이다.

이날 기도회 직후 열린 간담회엔 이동원(지구총교회) 정주채(향상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와 김상현(부광감리교회) 유관재(성광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재훈(은누리교회) 주승중(주안장로교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화종부(남서울교회) 목사가 함께 했다. 예배당 내부의 거리 두기, 토요일로 주일예배를 분산하는 문제, 셀 모임 등 흠어지는 예배의 중요성, 유튜브 기독교 콘텐츠에 이단 사이버의 내용이 자동 연결되는 문제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이날 기도회 설교는 이동원 지구총교회 원로목사가 맡았다. 이 목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고통의 땅 ‘마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세계가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데, 고통은 때로 하나님 시험의 교실이며 광야는 하나님 체험의 기회일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북 동포 위해 기도할 때”

연이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교계 “미확인 정보 유의”

북한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통일선교 사역자들은 “미확인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에게 초점을 맞춘 중보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국내외 언론은 최근 김 위원장이 중태에 빠졌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오성훈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은 27일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이목을 집중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확산시키려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보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지도자 공백이 발생하면 체제가 바로 붕괴될 것이라

서울시, 신천지 위장 평화단체 법인 취소

HWPL 사용 못해...청문회 불참 서면의견서만 제출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위장 평화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24일 “HWPL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결과 법인설립 취소요건을 적발했다”면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인설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먼저 서울시는 HWPL이 승인받은 법인 목적 사업이 ‘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종교 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집단과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해 시민을 호도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취소 이유가 됐다. 게다가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천지 측은 2013년 6월 4일 이만희 교주를 대표로 한 해당 법인을 서울시에 등록했다. 당시 법인을 등록하며 ‘중국 동포

“다음세대 중심 목회로의 대전환 시급”

다세본, 교회학교 패러다임 전환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족이나 어려웠던 교회학교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다세본·대표회장 최승일 목사)는 코로나19가 교회학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교회가 ‘다음세대 중심 목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세본 사무총장 박연훈 목사는 21일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교회의 기능 중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를 비롯하여 비정족 사회가 도래하고 공동체성이 해체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문화로 바뀌었다”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성곽 문화로 변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다음세대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담임목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예산과 콘텐츠, 시스템 등을 투입해 교회학교 부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담임목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선 이를 강점으로 삼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서부교회, 경남 거창제일교회, 화성 동탄시온교회, 당진 동일교회, 수원삼일교회, 군산 드림교회, 천안갈렐리교회 등

교 말했다.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접한 이스라엘 민족이 오아시스인 엘림을 불과 11km 앞두고 광야에서 쓴 물을 마시며 또다시 불평할 때, 그들은 고통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전했다.

주승중 목사는 일곱 가지 제목으로 통성기도를 이끌었다.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의 코로나19가 치유되며, 대량 실업과 대공황 위기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가 내리고, 북한에 상식적 정권이 들어서며, 한국교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흠어져 세상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주 목사는 특히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교회가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직접 나누는 공감소비운동의 확산을 위해 기도했다. 주 목사는 “취지에 공감한 85개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반으로 운동이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는 성급한 전망도 경계해야 한다.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남북상생본부장은 “북한에서 지도자 유교 상황이 생기면 북한 사회가 급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면서 “하지만 쿠데타가 발생해 독재 시스템이 바뀌기보다는 당이 국가기구를 장악한 채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 교류, 의류 및 곡물 자원봉사 ‘독일, 필리핀,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등국의 문화교류(언어교육, 평화 강연 등) 및 생필품 자원봉사’ ‘국제연대(유엔, 인권, 환경 개발문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사업’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HWPL이 위장 단체로 활동한 정황이 담긴 일부 신천지 피해 신도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어 해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HWPL 측은 불참한 채,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HWPL은 인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 사용도 금지된다.

담임목사가 주도적으로 다음세대 목회를 이끈 결과 부흥으로 이어진 교회들이 많다. 인천에 일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반기 ‘전도 축제’를 ‘다음세대 찬스축제’로 정하고 전 교인이 다음세대 한 명을 품고 전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진정성 있게 준비된 예배, 조직력 있는 교사 시스템, 강력한 교사 기도회, 행복한 반 운영, 누구나 공감하는 학교 앞 전도 등의 모습을 성령의 힘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어린이를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는 한 사람 운동’이 절실하다”며 “이제 숫자가 아닌 질적 논리로 부흥에 다가 가야 한다.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뀐 영국 등 서구 교회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세본은 다음 달 25일 경기도 용인 골드CC웨미리론도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키츠치치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천지에 포교 대신 전도 사용”

서울시, 불교계 민원 받아들여 수정 결정

서울시가 불교계 민원을 받아들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는 ‘포교’ 대신 기독교계가 주로 쓰는 ‘전도’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사이비종교임을 무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와 일부 불교 매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응답소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의숙) 등 불교계가 제기한 ‘포교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민원에 “신천지교의 전도활동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포교’보다는 ‘전도’나 ‘선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회신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 26일 서울시가 신천지의 별도 법인 명칭인 ‘새하늘 새방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천지의

전도나 선교를 ‘포교’로 표현하자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의숙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그동안) 일부 언론이 기독교의 정상적인 선전은 ‘선교’이며 이단이나 비정상적인 선전은 ‘포교’라는 개념으로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포교’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이단의 활동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한다”면서 “선교라는 기독교 용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기독교계에서 앞장 서고 있다면 이는 언어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불자 108인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띄웠다.

불교계에서는 ‘포교’란 용어를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보면 포교

“차별금지법 제정 NCKK 규탄”

기독교자유통일당,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 옹호” 주장

기독교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22일 ‘좌익적 정치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

행 촉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자유통일당은 성명에서 “NCK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



“우울증과 영적 치유” (1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5. 비탄과 분노

한번은 자살 방지 감시방에서 깊은 고심에 찬 한 여성을 방문했다. “나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많은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믿어요. 우울증을 치료 받으려고 수많은 항우울제를 복용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마음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 자유와 자존감까지 잃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있었지요?” “네, 좋은 시절도 있었고, 마약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그녀는 삶에 지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정상적으로 좋은 생활을 할 때가 언제였어요?” “3년 전이에요.”

“무슨 일로 이런 고통스런

아픔을 겪었고 왜 마약을 사용하게 된 건가요? 분명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내 눈 앞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쏘서 자살을 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의 죽음 후,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나는 나의 삶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의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비통한 마음을 치료해야 해요. 당신은 비탄의 방안에 갇혀 있어요. 당신의 문제는 분노, 원한, 용서, 비난, 남편을 내려놓는 것 등 많은 감정의 상처 상심한 마음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계속 흘리며 말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상심한 마음으로부터 치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왜 진작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수년 동안 상담을 해왔는데 사람들은 약간 주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이예요. 이제야 남편의 죽음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상심한 사람들이 치유 받지 않으면 우울증 뿐 아니라 자살충동에도 빠질 수 있어요. 나 또한 상심하고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슬픔의 고통을 치유 받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것, 나의 아들이며, 누구도 그를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준 것일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혼란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너의 집과 가구,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얼마동안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너 너의 자녀들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력함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주님께 “주님,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것, 나의 아들이며, 누구도 그를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준 것일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혼란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너의 집과 가구,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얼마동안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너 너의 자녀들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원리 알면 상실감에서 온 우울증 치유 슬픔에 빠지면 자신에게만 열중하고 남의 고통 이해할 수 없어

나도 정상적인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남편을 용서하는 것과 그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나는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계속 아픔 속에서 살게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를 내려놓고 치유를 받으라고 하세요.”

그녀는 자살 감시 중이었기에 책을 가질 수 없었다. 감시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 “치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 깊은 상실감과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에 빠졌었다. 나는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큰 교훈을 하나 얻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잠시 지니고 누릴 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평생 남편을 내려놓지 않고 슬픔에 싸여 살아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남편을 떠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기 전까지 나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무

들 또한 나의 것이다.”

나의 여생 동안 슬픔에 빠져 지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남편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 달 후부터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남편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비탄감과 아픔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보고 싶지도 않게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듯이 그녀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녀와 헤어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그녀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과 남편의 죽음을 본 아픈 기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다.

그녀는 자살 감시시설에서 나온 후, “치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를 읽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그녀를 감방 안에서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았다. 나는 그녀가 변화했고, 슬픔극복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비탄감과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그녀의 치유된 삶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픔과 슬픔에 갇히는 대신 앞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 자신에게만 열중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치유를 얻은 후,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마약중독과 자살한 아버지로 인하여 크게 상심한 아이들도 치유 받아야 함을 의식하게 되었다.

yeonghui.mcdonald@gmail.com

특/별/기/고

“선교사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19 비상사태가 가져온 세계선교현장 변화와 한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 방향” (상)

들어가는 말

2015년 스위스 다보스(세계경제) 포럼에서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바이오 테러리즘이 더 무서울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학교를 휴교하고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 모든 언론과 또 모든 SNS미디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화두이다.

세계는 현재 각 나라 도시, 그리고 사회 전반을 한 순간에 마비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상의 비상사태였지만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장기적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기에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비상상태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공황상태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를 넘어 이태리 스페인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휩쓸어 가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의 바이러스는 변종바이러스로 동남아의 바이

러스보다 훨씬 강력해 치사율이 높다고 한다.

또한 케냐에서는 중국과 이태리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마다 비상사태기간을 연장해 나가므로 초유의 심각한 사태가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생치안 문제에서 경제공

리스어로 "pan"은 모두이고 Demic은 사람이란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적 대유행인 "판데믹" 상황이 되었다.

황을호 박사가 쓴 '유행병과 기독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10대 판데믹 역사를

과 6천여만 명을 낸 2차 세계대전(1939-45년)보다 더 많은 수, 1억여 명이 사망했다(5억 명 감염). 우크라이나 최하영 박사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14여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학자는 바이오 테러리즘(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으로 1년에 3천3백여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예배당이 폐쇄되고 선교비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국 파송교회와 현지교회 재정공급을 비롯한 복합적인 사정에 따라 사역을 멈추고 자가 격리하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들어오지도 못하며 나가지도 못해...”

황으로, 교실교육에서 온라인 가정학습교육으로, 건물 중심의 집회가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역사적 측면에서 본 유행병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병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판데믹(Pandemic)은 전염병의 대유행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나눈 전염병의 위험도 6단계 중 최고 경도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하는 상태다. 그

소개하고 있다. 안토니우스 역병(165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541-542년), 흑사병(1346-1353년), 3차 콜레라 유행(1852-1860년), 러시아 독감 아시아 독감 판데믹(1889-1890년), 6차 콜레라 판데믹(1910-1911년), 스페인 독감 판데믹(1918년), 아시아 판데믹(1956-1958년), 홍콩 독감 판데믹(1968년), HIV 에이즈 판데믹(2005-2012년),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메르스나 사스, 그리고 코로나19이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천5백여만 명 사망자를 낸 1차 세계대전(1914-18년)

2003년에 29개국 8096명 감염자중 774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와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로는 27개국 2494명 감염자중 20.5% 치사율인 858명이었는데,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163개국에 감염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50만명(누진확진자)을 넘었으며 4월 10일 하루 2108명이 사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만8600명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이탈리아(1만8849명)에 가까운 상황이다.

2. 코로나 바이러스19를 대응하는 한국인 선교사와 선교지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경을 봉쇄하고 공황을 폐쇄하며,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세계 160여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 당하는 어이없는 실정이 일어났다. 예배당이 폐쇄되고 선교비

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국 파송교회와 현지교회 재정공급을 비롯한 복합적인 사정에 따라 사역을 멈추고 자가 격리하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들어오지도 못하며 나가지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사태가 심각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탈선교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 상황과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한인 선교사들은 현재적 상황을 보고하고 공집회 중단명령을 수행하

면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3. 선교지 상황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가 2만명이 넘어선 중남미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난 주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Covid-19 상황을 살펴보면;

-멕시코 AMLO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방역조치에 나섰다. 너무 늦은 조치이기 때문에 내 의학 전문가들은 앞으로 여러 달 동안의 긴 싸움을 해야겠다고 염려한다. 4월 22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공공집회, 쇼핑, 극장, 식당을 비롯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위반시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

-저도 개인 후원자들과 후원교회로부터 당분간? 후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든다는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비 지출을 축소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사역도 자립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안성원).

-리콜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허드슨 테일러가 주장한 믿음선교(faith mission)를 배우고 익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한도수).

-제조회사를 시작하여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로 바울처럼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변재창).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교회당 모임을 가질 수 없기에 연약한 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가능할 수 없습니다(남성균).

kangsungchuel@gmail.com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지구촌 민낯

(3면에서 계속)

최근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치수위를 놓고 힘겨투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브라질에서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경제활동 지속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셧다운'을 시행하면서 부딪혔다. 대통령 지 시령과 반대세력 간 정치적 유, 불리 계산이 갈등 원인이다.

거짓정보 전파에도 속수무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이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코로나19가 5G 이동통신망을 타고 번진다는 괴소문에 영국과 벨기에 등에서는 지난 2월부터 5G 기지국에 방화가 잇따랐다. 또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국영방송을 통

해 미국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가짜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생필품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휴지 등 물건 사재기가 일어났다. 각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라고 정정했으나 가짜뉴스는 힘

이 됐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휴지를 사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웃돈까지 얹었다.

이밖에 소 분뇨로 목욕하거나 특정음식을 먹으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의학 정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퍼졌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면서 인포데믹(infodemic)에 도달했다며 우려했다. 이에 페이스북 북과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 가정의 5가지 목적

하나님의 창조는 허구로 꾸며낸 신화나 전설,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가진 5가지 목적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1. 종족의 번식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창조,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7-28)는 것입니다.

종족번식은 하나님의 뜻이며 결혼과 가정의 지속적인 목적

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결혼을 거부(비혼)하거나, 자녀를 가지지 않거나(저출산), 임신한 아기를 낙태시키는 행위는 결혼과 가정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대한 정면적 도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들이 부모에게서 신앙적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의무이며 축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최초로 만드신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종족번식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족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간의 전 생활영역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God's Absolute Sovereignty) 아래 있으므로, 기독교 가정도 그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기독교 가정은 하

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널리 알리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T.B. Maston은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라는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입니다.

4. 성적욕구 표출의 정당한 통로이다.

가정의 목적은 성적욕구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함에 있습니다. 결혼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한 부부의 정당한 성적욕구 표출이 라면 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전7:8-9)고 독신자와 과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 신앙의 훈련장이다.

기독교 가정을 통일시키는 바탕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히 11:1)고 성경은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되심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시103:1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근본목적 성취하기 위하여, 가정은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이 신앙의 훈련장이 되기 위하여 모든 가족의 신앙을 통하여 통일된 일치감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비혼, 저출산,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정면 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나라 확장, 성적욕구 정당표출, 신앙훈련장

가정이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그러나 혼전성교나 혼외정사는 간음입니다.

독신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신로 편지

헝가리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심하는,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근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요. 두 경우; 1)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2) 사탄이 방해할 때 예배를 못드리지요. 원인은 우상숭배와 교만, 거짓말, 동성애! 이런 것이 창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하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좀 멈추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회개”를 주신 것같이... 그래서 저희는, 간절함으로... 자신(영혼)과 가정, 예배당 곳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고후 7:1, 11).

소식과 기도제목을 드립니다(사진은 왼쪽부터 아래로)

1. 그래도 교회로 오는 자들에게는 마스크와 식료품 봉지를 나눠주고, 기도와 권면 후 돌려보냅니다.

저희 부부만 예배당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성도들은 각자 라디오나 TV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2. 헝가리인들은 마스크보다 장갑을 더 철저히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3월 15일 다함께 예배드린 후, 현재까지 5주째, 정부에 방침에 따라 외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혁명기념일인 그 날은 클라라가 폐쇄된 산도르의 시, “헝가리어 일어나라”를 낭송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그 긴 시를 다 외우고 있어서 비디오를 찍어 폐부에 올렸습니다. 저희 사역 기록을 그때그때 올리는 곳은 facebook.com/hungary79입니다.

3. 그동안, 벨라스 목사님(교



도소 사역)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주신 주일도 있고, 저희 구역인 부다페스트 10구역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셉 아틸라 고아원(보육원)에서 아이들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놀아도 주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그림성경책”을 나눠줘서 읽고 쓰게 하고 나중에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4. 저희 부부는 가정교회로 매일 예배드리고, 울타리 안에서 '걸으며 기도하기(walking prayer)'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의 기기를, 사역용품들을 다 꺼내어 닦고 쓸고 정리하며, 또 곳곳을 청소하고 있

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일용품을 갖다 주며, 성경읽기와 쓰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개혁교회”와 “거리의 교회”의 성도들 중, 독거인과 노숙자가 찾아오면, 필요를 들어줍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Majestic God! 감사드리며,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선교가 갈 방향

황성주 사랑의병원 병원장은 3가지를 전망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도전적 삶 살기 △선교전략과 실행의 디지털화 △가정교회와 소그룹 공동체로의 신속한 전환 등이다. 황 병원장은 “이 모든 상황은 세계 선교의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상한 마음에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며 “지금 은 마지막으로 열린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 모두 열정적으로

인했다고 소개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가정교회와 소그룹 공동체 형태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황 병원장은 “이슬람 세계에는 지진 같은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슬람 역사에서 모든 모스크가 문을 닫은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알라신이 아니라 코로나를 무서워한다는 뜻”이라며 “세계적으로 종교의 3대 기둥인 성전 성직자 예배의식에 일대 전환이

선교환경, 코로나 이후 급변...새 전략 세워 신속 대응해야

복음을 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소통은 일상이 됐다. 황 병원장은 “모든 선교전략과 실행에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재빨리 변하지 않으면 선교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터키에서 열린 스마트 사역 세미나를 예로 들면서 페이스 북과 유튜브를 이용한 무슬림 선교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확

일어날 것이다. 즉 이슬람 등 기존종교가 유지해온 기동들이 뿌리째 뽑히고 그 공백을 소그룹공동체로 훈련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 중심 신앙에서 사람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흠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키워야 한다. 일대일 복음 전파와 일대일 제자훈련에 집중하자”고 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62)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1 Peter 4:12-14

12)Dear friends, do no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 you are suffering,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13)But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14)If you a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

(NIV 1984)

WORD & IDIOM

* be surprised at ~: ~을 보고 놀라다, ~에 놀라다 * painful: 괴로운, 고통스러운 * trial: 시험, 시련 * as though ~: 마치 ~ 인 것처럼 * participate in ~: ~ 에 참여(참가)하다 * rejoice: 기뻐하다 * so that A may ~: A가 ~ 하기위해 * overjoy: 매우 기쁘게 하다 * reveal: 드러내다, 보이다 * insult: 모욕하다

GRAMMAR

12) Dear friends, do no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
사랑하는 친구들아 놀라지 말라 괴로운 시험에

(1) you are suffering,

너희가 고통(고난)을 겪고 있는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마치 ~ 인 것처럼 이상한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에게 ⇒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괴로운 시험에 마치 너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

* <you are suffering> (1) 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the painful trial>의 <you are suffering>의 목적어이다.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문장은 항상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에 준하여 해석한다.

13) But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그러나 (that 이하를) 기뻐하라 너희가 참여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너희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위하여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 그러나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 ②의 <that>은 동사 <rejoice>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 위 13절 말씀의 <so that ~>이하를 나중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so that A may ~>를 <이는 너희가 ~ 하기 위해서이다>로 해석하면 된다. =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4) If you a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만약 너희가 모욕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

너희는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rests 하기 때문이다) 너희위에 머물러 있다. ⇒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너희는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 ③과④는 <Be + 과거분사>의 수동태 문장이다. 수동태란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태나 동작 등을 나타낸다. cf. Paul was called by God. = 바울은 하나님의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

STUDY & THOUGH

■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써서 고난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온 고난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고난을 연단과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섬리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 When Christian face suffering, there is a good reason for it.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왕하3:11-17)

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평생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 받아서 중요한 시기에 교회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위기 속에서 즉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16, 17절).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며 그대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왕하3:16-19)

성도의 매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7일을 찾아 해매도 물 한방울 나오지 않았습니. 그리고 바작 마른 골짜기에 바위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천을 많이 파두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입니다. 이 골짜기 곧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그곳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시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한계 속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행할 때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집니다.

수 아침에 미쳐 소제드릴 때에(왕하3:20-27)

두 단어 "아침에"와 "소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아침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드려지다, 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진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해 정성과 희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물은커녕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까

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천에 물이 넘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 아 니하시더라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바로 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왕하4:1)

왕하 4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계속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살려내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선지 생도의 부인과 아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 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의 생도가 죽어 빛을 켜는데 갈을 같이 없는 가운데 그 재주가 두 아들을 대신 종으로 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빛을 갚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

남편은 죽고 빛은 지고 아들은 노예로 보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히려 빛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잘 살게 됐습니. 그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다 말 하고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금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왕하4:1-2)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성도들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곁에 있는 성도는 참 복된 성도입니다.

다. 또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 생도의 부인이 한 가지 자기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습니. 그것은 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왕하4:2-7)

2절 2가지 질문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은 "내게 와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주야 가장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미국이여 ! 회개하라 !

영적대각성 회개운동을 선포하라.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계시는 만 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어 만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미국 국민들과 함께하셔서 공황을 배후시키고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능하신 말씀과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님과 제가 거주할 뿐만 아니라 3억4천 만명이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에까지 슬그머니 잠입하여 전미국으로 확산되므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 방역자들과 의료진들이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전세계 인류가운데 1억 명이 감염될 것이며 미국의 경우 15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전염병방지위원회 소장을 맡고 있는 파우치씨의 예견은 전 국민들이 국가 비상사태의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따를 경우 최대한 24만 명에서 최소한 6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불행 중 다행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사자인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속히 퇴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인류의 미래는 예측 할 수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것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또는 전세계적인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국정을 담당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트럼프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 미국국민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한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님께 쓰고 있는 저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및 예레미야 1장 4-10절에 나타난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세계로 파송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또한 지나간 40년 동안의 목회성역을 마치고 지금은 저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70세의 원로 목사입니다.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은 오로지 미국과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밖에 없는 줄로 알고 옛날 구약시대의 경건한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 놓고 하루에도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다니엘서 6:10) 또한 신약시대에 사도들도 하루에 세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사도행전 3:1, 10:3) 저희 부부도 하루 중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오후2시에서 3시 사이, 오후8시에서 9시 사이에 세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에 세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만, 이 사역만이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희 부부는 하루 세번씩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내가 영주하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서 제 마음속에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여 회개하라!" 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감동과 미국으로하여금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서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을 비롯한 찰스 웨니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디엘무디 목사님 등과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일으킨 영적대각성회개운동을 다시금 일으키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 공개 서한을 보내라고 하시는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오니 성령께서 미국과 대통령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겸허히 들으시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미국 국민들이 그 옛날 요나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앗수르왕과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배웃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죄악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요사서 3장) 미국도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게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관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밧모 섬으로 귀향가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당시 소아시아 일곱교회와 그 사자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가운데 각 교회마다 잘한 일은 칭찬을 하겠지만 반면에 잘못된 일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 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확진자만도 100만명이 육박하고 사망자가 5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 가운데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 미국국민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나타나서 "뉴욕시여 회개하라!"고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절규는 뉴욕시와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들만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닙니다.

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열방의 백성들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미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대각성회개운동을 선포하시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대통령님과 미국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으로 말미암아 전세계에서 300만명의 확진자와 20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이 현실과 미국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어떻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과 섭리만 존재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 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하는 말씀에 근거합니다(로마서11:36).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마태복음10:29)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발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상의 제물에 섞은 악행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1-3)

뿐만 아니라 "실로암 대개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망자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느니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13:4-5)

그러므로 우리는 현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17세기와 18세기에 미국 역사속에서 일어났던 영적대각성 회개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대통령님께 쓰고 있는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 "미국이여 사랑의 원자탄을 쏘라!" 고 하는 감동을 받고 순종함으로 글을 써서 제가 거주하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천 뉴스위크 신문에 그 전문을 투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에는 한미동맹 제 65 주년을 맞이하여 하와이주에 있는 미국 국립묘지인 펀치 불에서 거행한 한미동맹 평화대회에서 한민족 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목사)와 하와이의 거주하고 있는 50여 한인 애국단체들이 주관한 한미연합추도식에 한국측 기도자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소서! 미국대통령 트럼프를 축복하소서! 6.25 사변 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병사들과 UN군들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소서!"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제가 영주하고 있는 미국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역시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천 위클리라 크리스천 비전신문의 후면에 전면 칼럼으로 광고를 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병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미국이여 ! 회개하라 ! 영적대각성회개운동을 전개하라 !" 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불문하고 미합중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기록한 부담을 안고 몸부림 치며 기도하던 중 지난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대통령님께 제1차 Express Mail로 공개서한을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지난 주주 2020년 3월15일에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 하셨습니다. 전 미국민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미국이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재임시절 행정명령을 내리서 국공립 학교 내에서 금지시켰던 기도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셔서 국공립 학교 내에서 다시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일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웅대 즉 미국이여 회개하라 ! 영적대각성회개운동을 전개하라 !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하시면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미국의 대통령과 각료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되시며 만군의 주되시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님을 기뻐하실 것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고 칭찬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소멸되고 평화로운 미국을 건설하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던 광야교회에서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루에 14700명이 죽는 엄병이 발생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형인 동시에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16:46) 너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가라 향과 함께 속죄제를 드려라. 그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은 신속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엄병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이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내린 것과 같은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목사님들과 국민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성군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성군 다윗의 교만과 실수로 군사를 계속하므로 하나님께 괴심 죄에 걸려서 하루에 7만명이 죽는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엘하24:15)

그 때 다윗은 하나님앞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꿇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내 집이 범죄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나와 내 아내의 집을 치소서" (사무엘하24:17)

다윗의 이러한 회개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오르단의 타자 마당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다윗이 즉시 순종하여 오르단의 타자마당에 이르러 그땅을 구입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에 대재앙이 그쳤습니다.(사무엘하24:25) 이와같은 회개와 치료의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미국민들의 회개와 영적대각성회개운동을 통하여 이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합중국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왕노릇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원했던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입니다.

까닭에 미건국의 조상들은 헌법을 제정할때에도 성경에 기초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은 각료들의 직책과 직무를 수행하기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화폐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글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국 국회의 상하 양 의원에 각각 원목 목사님들이 계셔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목사님의 기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230여 나라들 중에 그 어느 나라 보다도 미국에게 가장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전세계에 3만명에 이르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전세계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미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여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도 많이 했으며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영적인 상황은 마치 노아시대(창세기 6장)와 소돔과 고모라(창세기 19장)를 방불케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과 3장에 나타난 죄악상과, 예레미야 2장과 3장에 나타난 죄악상과,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죄악상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18장에

등장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세우고자 했던 신정국가의 모습은 어디론가 살아지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황금만능 맘몬주의가 판을 치고 온갖 우상과 마약과 살인과 폭력과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과 사치와 방탕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까닭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진행 하시면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까닭에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세계를 비롯한 미국에까지 침투하게 허락하심으로 이처럼 전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하라"(마태복음10:28)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윤택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사도행전3:19)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갈고심이며 그 활을 이미 당기에 예비하셨도다"(시편7:12)라고 경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대각성 회개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능하신 말씀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주시고 미국과 온백성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상 시기에 방역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적대각성 회개운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근절시키는 최대, 최고, 최선, 최상의 방역대책이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위한 인간들의 방역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를 비롯한 영병과 재앙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분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비상시국 때 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온역과 재앙이 물러가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 한분은 전미국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성군 다윗 한 사람의 회개가 대제앙을 그치게 하였듯이 트럼프 대통령 한 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로 믿습니다.

미국이여 회개하라! 미국이여 영적대각성회개운동을 일으키라고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미합중국연방정부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주어진 권한으로 명령을 선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전세계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내는 미 합중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과 세계의 역사에 기록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람!

주후2020년 4월27일 (월)

미국을 사랑하고 트럼프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광교회 박광재 배상